

타운 · 하프 · 뉴

2017 / 정수광과 마엘아카이키 프로젝트 / 인천강남리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남과 북을 잇는 관문이자 분단의 접경지역이다. 군부대, 개발제한 등 접경지역의 특성과 그로 인한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지닌 곳으로 마을단위의 기록조사와 아카이브 등 지속가능한 문화적 지역접근이 요구된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의 기록보존과 정체성 구명, 문화적 지역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본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직접적 영향이 잠재된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을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였다. 접경지역의 특수성 내재 여부, 낙후되고 쇠락한 마을, 회복기회나 계기가 없어 소외된 마을, 내·외부 변화로 인하여 아카이브가 시급한 마을, 향후 마을재생사업이 필요한 마을을 기준으로 지역관계자의 추천과 의견을 받아 기준에 부합한 마을을 1차 선정한 후 두 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3곳의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그 마을이 동두천 덕거리, 연천 신망리, 파주 선유리이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작가와 기획자가 3곳의 마을에서 각자의 예술적 시선으로 마을의 맥락에 맞춰 아카이브를 진행하였다. 아카이브의 내용은 마을의 환경 기초조사, 내·외부 변화 양상 기록,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그리고 지역맞춤 마을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까지 포함한다. 방식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구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워크숍 등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결과물은 텍스트, 사진, 영상과 녹취 형태로 기록되었다.

아카이브의 방향과 방식은 개별 마을의 특성과 환경, 작가와 기획자의 시선에 따라 자율적이고 실험적으로 열어두고 진행하였다. 마을환경에 부합하는 현장감 있고 자유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경기북부에서 첫 시도된 접경지역 마을 대상 예술 기반 마을아카이브 방향과 방식을 확장하고 문화적 지역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자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같고도 다른 우리 이웃의 삶의 기록을 공유하고자 한다.

10368호
8664호

약국

치방·조제

834-2576

관리원
어음
전통차단기



정지
STOP

연산로 499

무엇보다
안전! 주.DMZ방!
안전 무사고를 위하여 꼭 지켜주세요





신망리

Sinmang-ri | 新望里

연천

Yeoncheon | 漣川

대광리

Daegwang-ri | 大光里



들어가며

수복지구와 접경지역

수복지구(收復地區)는 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와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일부(1963년 철원군에 편입)·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고성군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발발 3년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이루어졌으며, 수복지구는 군정 하에 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이 시행되어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존치로 인해 수복지구에 참정권 중 하나인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1961년 4월 27일 수복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일부 행정구역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

이러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군수경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부대가 빠져나간 지금까지도 주민 퇴각로가 지정되어 있는 등, 군사적 요구와 지역이 맞물려 있다. 또한 물리적 휴전선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접경지역의 월남, 월북 사례가 보다 잦았으며 이에 가택 수색이나 고발, 사상 검증 및 처형 역시 빈번하였는데, 폭격이나 수색에 대비한 방공호는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지만 접경지역의 경우 집집마다 방공호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이다.

수복지구의 피난민 정착촌에는 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살던 이들이 다수 정착하였기에 마을 주민 다수는 어린 시절 이북 정치와 교육을 경험하였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이들은 상당수가 50년이 넘도록 그대로 같은 집을 지키며 살고 있으며, 이제 황혼의 나이를 지나며 많은 이야기들을 가슴에 묻은 채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눈앞에서 폭격과 전쟁을 경험하고 이북과 이남의 정치를 모두 경험한 이들의 독특한 생애와 경험은 적절한 연구와 자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나들 묻히고 있다. 이에 수복지구 실향민의 문화와 구술생애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경기지역의 실향민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를 축소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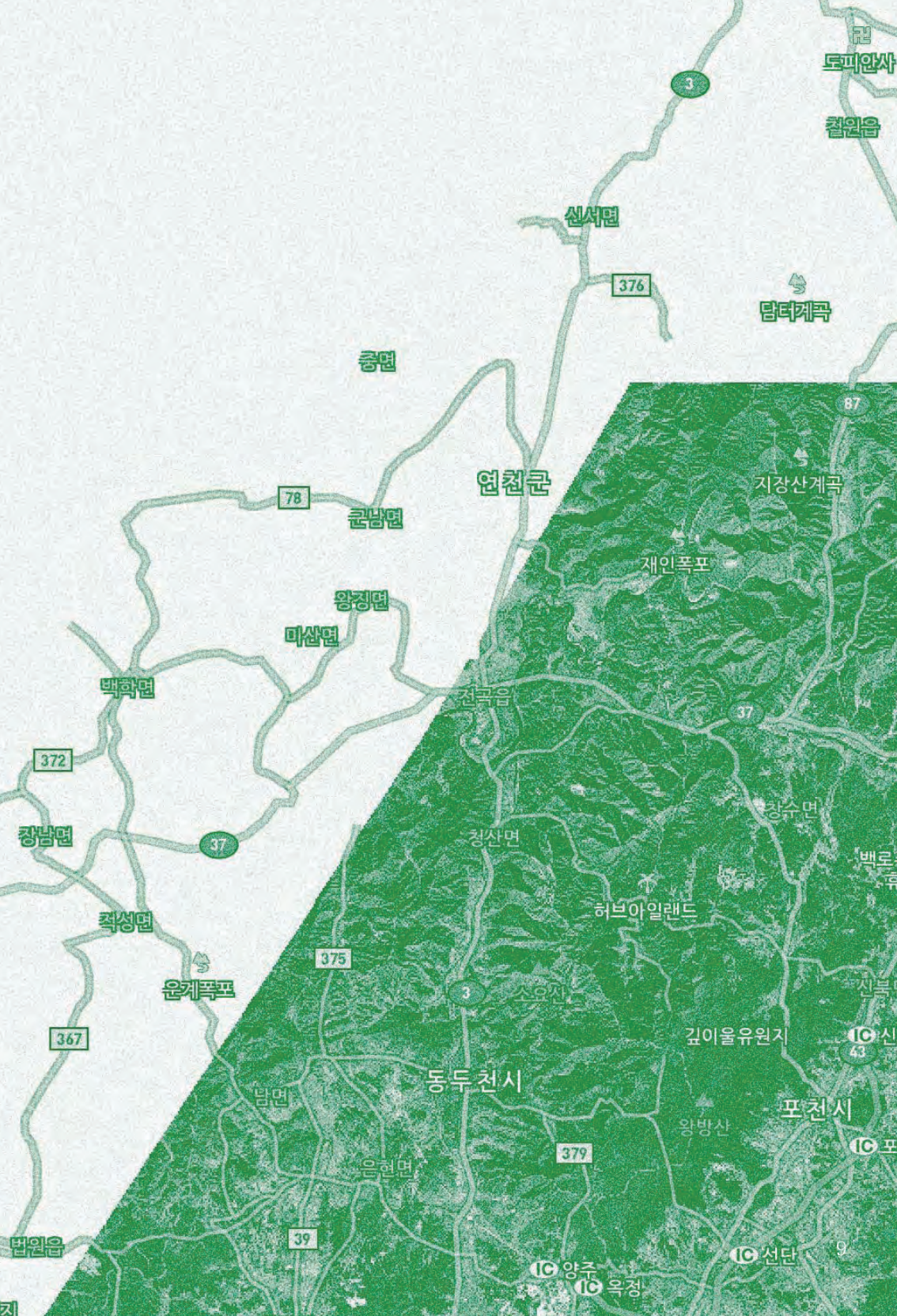


New Hope Town, 연천 신망리

신망리(新望里, New Hope Town)는 경원선 신망리역 서쪽에 위치한 피난민 정착촌으로, 폭격으로 초토화되었던 이곳은 휴전 직후 1954년 피난민 정착지로 지정되어 UN군(미군)의 원조로 100채의 가옥 및 행정 시설이 건립되었다. 피난민은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제비뽑기를 통해 살 집을 정했는데, 이때 가옥이 '1호', '2호', '3호' 등으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가옥과 입주 세대는 현재까지 '1호집', '2호집'과 같은 호수로 불린다. '새로운 희망'이란 뜻을 가진 '신망리'라는 마을 이름은 미군이 붙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주민은 입주민과 미군이 함께 정한 것이라 전한다. 가옥을 지어 마을을 형성하긴 하였으나 주변은 여전히 지뢰밭이었으며, 이에 폭발 사고로 지인이나 친족을 잃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인근의 사격훈련장에서 탄피를 줍거나 미군이 먹다 남긴 음식물로 '꿀꿀이죽'을 만들어 먹는 등 어렵게 생활을 이어오며 부대가 빠져나가기 전까지 군수경제에 의존해왔다.

이렇듯 미군의 원조와 군의 관리 하에서 군수경제에 의존해 살았던 마을 주민 대부분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층이며, 여느 수복지구와 마찬가지로 노령 주민의 경우 많은 수가 수복 이전 북한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행정구역으로는 '상1리'가 신망리에 해당하며, 경원선 동쪽 편 '상2리'에는 한때 군인을 대상으로 한 다방거리가 형성되었다가 현재는 일부 식당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Town. Hope. New.

대지를 평평히 고르고 그 위에 격자형 길을 반듯하게 내어 고만 고만한 집들을 올린 신망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장 높은 건물이 3층에 멈추어 있다. 한 채를 제외한 모든 집들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대체로 이전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집에 속해 있는 작은 마당에 주민들은 나무와 꽃, 작물을 가꾸는데, 이러한 신망리의 풍경은 미국이나 유럽의 시골 마을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신망리에서 접한 풍경이나 사람들은 접경지역이기에 무섭고 불안한 동네일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따뜻하고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때때로 대남방송이 들리고 사격훈련 총소리가 이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신망리 간이역에서부터 마을 안의 노인회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환대가 이어졌다. 마을 초입의 슈퍼 앞 간이테이블 위에 우리가 꺼내놓은 포도 한 송이에 금새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한 할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우리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라며 서예 연습을 한 화선지를 들고 나와 햇빛 아래 펼쳐 시를 읊는가 하면 다른 할머니는 스케치북 몇 권 가득 그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외지인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이후 몇 차례 이어진 방문에서도, 주민 분들은 대체로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물론 마을의 모든 것이 마냥 밝고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군이 버린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했던 시절이나 지뢰를 밟아 죽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 이후의 처참한 환경을 전해주었으며, 철길 건너 희미하게 남아있는 다방거리는 지금은 모두 떠나가고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존재를 상상케 한다. 할아버지들의 경우 누군가의 생일이면 수십명이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갈 정도로 주민들 간 사이가 돈독한 마을이지만 ‘내가 김대중을 찍어서 별명이 김대중이야’라는 할아버지는 다른 동네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느 시골 마을이 그렇듯, 논밭이나 축사에서 일을 하느라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가정 자녀들의 어려움이 한 칸에 스며있었다.

신망리의 아기자기한 모습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집, 살림살이, 나무 할 것 없이 폭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초토화된 땅, 전쟁 직후의 접경지역에 대해 신망리의 이장 권양숙 여사는 아래와 같이 회상한다.

“고향 잃어버리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황무지잖아. 그럼 개간을 해야하는데 가진 게 팽이 밖에 없잖아. 그럼 엄마 아버지가 묵은 땅을 일궈.”

마치 땅을 일구기라도 하듯 권 여사가 그들 아래 친구들과 노동거릴 '노후대책'으로 심었다는 나무는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다. 군부대의 이전으로 마을의 경제가 죽고 황폐화된 적도 있었지만,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신망리에는 최근 신작로가 들어서는 가 하면 게이트볼장, 댄스교실과 서예교실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시설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라 말하는 서예는 단연 마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문화활동이다. 서예는 남편을 여의고 아내를 여의어도, 자식들이 곁에서 떠나고 친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혼자 남아도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남겨 두고 도망을 가야하기 때문에 미숫가루같은 비상식량이 많다는 이야기 등, 마을 주민들의 내러티브에는 접경지역 특유의 공간적 맥락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신망리 주민들의 삶과 언어, 집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는 아름다움과 편안함 한 권에 체념과 무위의 정서가 스며있었다. 이는 언제고 엄습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체념 섞인 불안,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혼재하는 것이었다. 너무 멀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너무 먼 미래에 천착하고 현재를 저당잡히기보다, 고통을 승화하고 주어진 현재를 그 안에서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 신망리의 희망은 그런 희망이지 않을까 싶다.

글 / 진나래

지역 유래

신망리(新望里) : 경원선 서쪽에 형성된 시가지. 이 곳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5월 피난민 정착 지역으로 지정되어, 미군 제7사단에서 3만 평의 부지 위에 세대당 330m²의 대지에 59.4m² 크기의 목조 가옥 00호를 건립하여 선착순으로 피난민을 입주시켰다.

연천읍 : 연천읍은 본래 연천현의 현내면지역으로, 읍내리, 지혜동리, 동막리, 무수동리등 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고종 32(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으로 개칭하고 읍내, 지혜, 차탄, 통현, 동막, 고문 의 6개 동리로 개편 관할하였다가, 1941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의 와초, 옥산, 현가, 상리등 4개 동리를 병합하여 와초, 옥산, 현가, 상, 읍내, 차탄, 동막, 통현, 고문의 9개리로 개편 관할하였으며, 1938년 1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8호"에 의하여 군내면을 연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는 연천면 전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6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557호"에 의하여 포천군 관인면의 부곡리를 새로 편입하여 10개리로 개편 관할하여 오늘에 이른다.

상리 : 상리는 본래 연천현 동면의 지역으로 '웃골'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좌찬리(左贊里)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웃골'에서 이름을 따 '상리'라 하고 군내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1월 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20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근 지명 유래

고터동(庫岱洞) : 신망리역 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 이 부근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보관했던 연천현의 읍창(邑倉)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

어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연주 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다방거리(茶房巨里) : 경원선 동쪽에 있는 마을. 1954년 수복 후 연천읍 관내에 최초로 다방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새능 : 신망리역 서쪽에 있던 마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곳에 큰묘를 썼다 하여 새능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현재 묘는 확인되지 않으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웃골[上洞] : 밤골 위에 있던 마을. 상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쟁골(齎宮洞) : 마정승 묘 서쪽에 있던 마을. 원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順帝, 333~1367)의 황후였던 기황후(奇皇后)의 묘와 재실이 있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전 전까지 한양 조씨(漢陽趙氏)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큰밤골[栗洞] : 필리핀군 참전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한국전쟁 전에는 파평 윤씨(坡平尹氏)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황해촌(黃海村) : 닭운이 남쪽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연천읍 인구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4,068	8,408	4,559	3,849

출처 / 연천군청 홈페이지, 2017년 12월 기준

햇-스팟

햇-스팟은 작가-리서처들의 지역 진입 및 리서치 수행이 용이하도록 돕는 이동식 지역리서치 팝업사무소이다. 접으면 여행가방처럼 끌고 다닐 수 있고, 펼치면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리서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초기 진입에 있어 집집마다 방문을 하기보다는 마을회관 앞이나 공터에 햇-스팟을 설치하였을 때 덜 폭력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오히려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다. 마을이나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신방리의 경우 이렇게 임시 사무소를 펼친 우리를 발견한 주민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오곤 했다.

햇-스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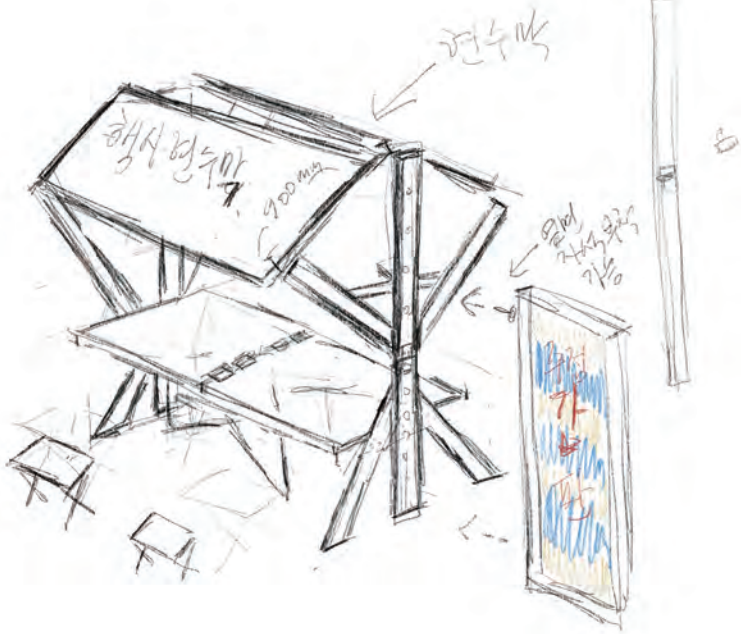
디자인 / 백인태, 진나래
제작 / 백인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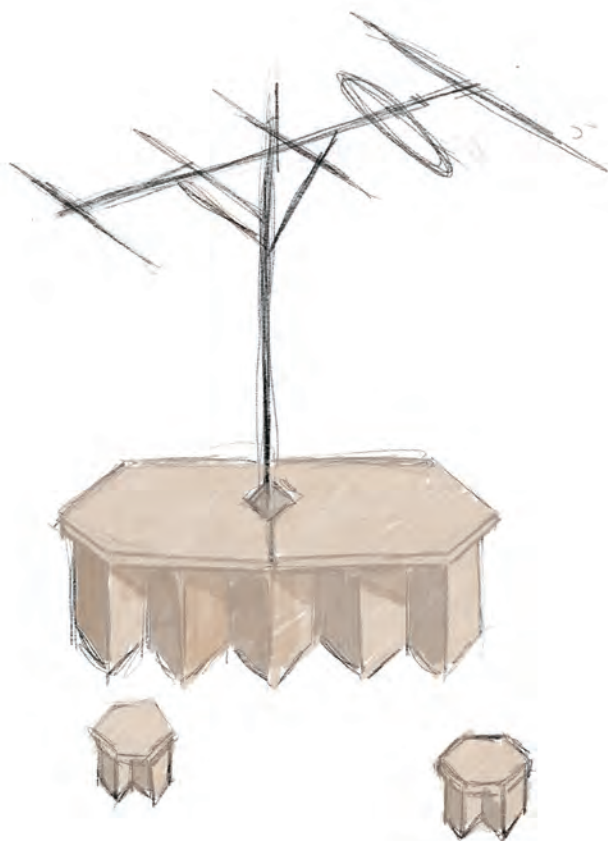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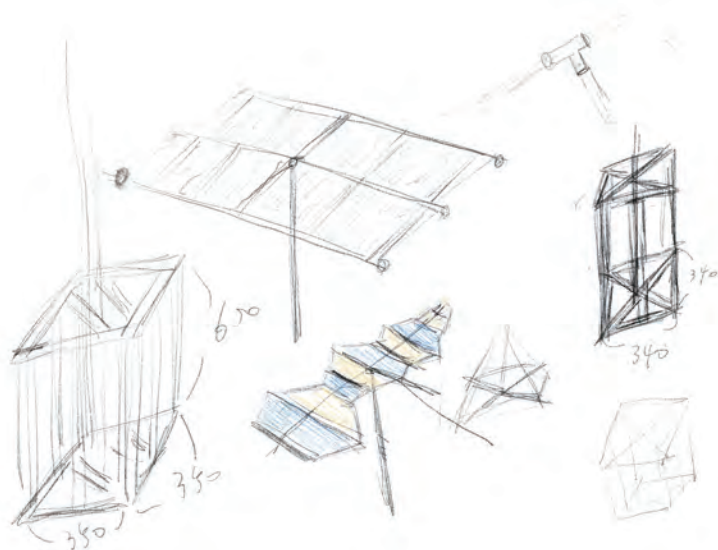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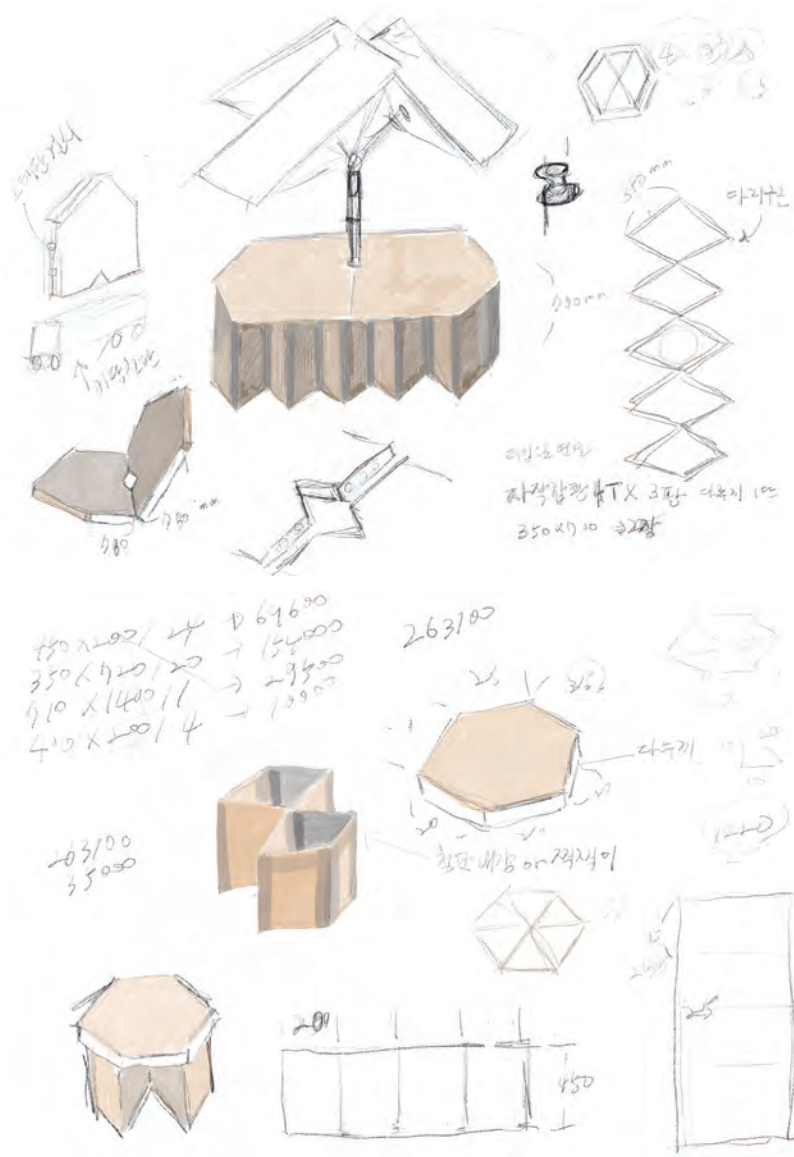
햇스팍

햇-스팟을 위한 드로잉 - 백인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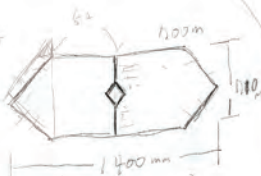




3/4
x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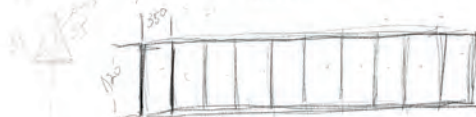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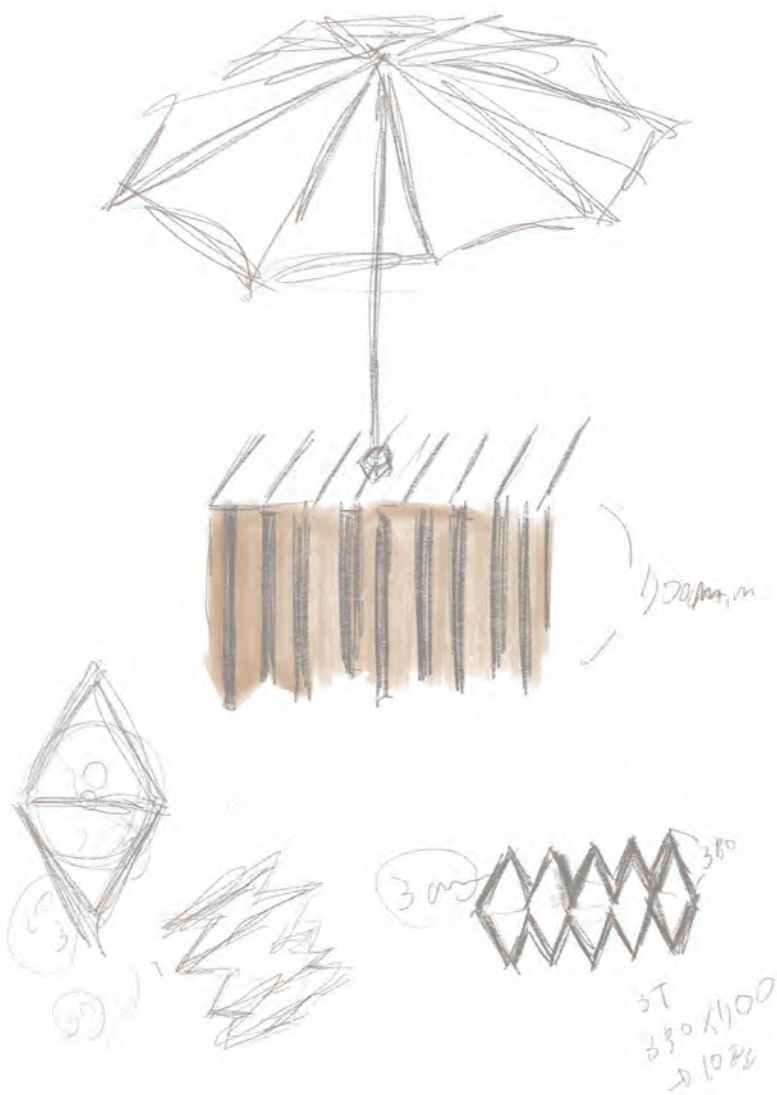
※ 스테인레스 X 4, ※ 철관 4개 1개
※ 6각형 6개, ※ 직각삼각형 6개
※ 6각형 6개, ※ 직각삼각형 6개 (총 12개)



240x240 240x240 6.76.00
250x250 250x250 15.40.00

테이블 < 910x920mm 2판
350x720 20판
합계
의자 320x450mm 24판
400x400mm 4판
합계 320x450mm 1판







(全备材料 15890
 100 2400
 1004
 1/2000 4T
 200 x 400 → 66
 400 x 400 → 114
 1. 21.7
 1. 7.5%

신망리의 지도

어느 날 나는 접경지역의 여행자가 되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나날들을 상상하며 돌아다녔다. 그동안 만났던 주민들의 삶과 풍경은 잘 어울리지 않았다. 다만 신망리를 둘러싼 낮은 산과 밭고랑 사이로 들려오는 이질적인 소리들이 작업의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 주로 새벽에 들리는 대남방송과 밤마다 개들이 집단으로 짖는 소리, 인근 부대에서 들려오는 체조노래가 그러하다. 또 시간마다 간이역을 지나는 기차소리가 그렇고 파밭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인 노동자의 흥얼거림이 그러하였다. 그것은 누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는 익명의 통증이 반복되고, 변형되는 소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2017년 봄부터 가을까지 이 소리들을 감각하며 3개의 지도를 그렸다.

자우녕, 진나래





신망리 - 삼거리 슈퍼 할아버지 기억 속의 지도

A landscape photograph showing a wide, flat field in the foreground, possibly a rice paddy, with some dry vegetation. In the middle ground, there are some small buildings and trees. The background features large, hazy mountains under a grey, overcast sky.

낮은 산들과

탈연속성의 흔적

인근부대에서 들려오는 체조소리

개 짖는 소리

피밭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인 노동자의 이국적인 흥얼거림

허허로운 밭고랑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들

간헐적으로 울리는

익명의 통증

새벽에 들려온다는 대남방송

시간마다 간이역을 지나는 기차소리

신망리의 지도





이야기 지도 - 자우녕

간이역 신망리

용산에서 출발해서 원산까지 오갔던 경원선은 한국전쟁이후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함으로 백마고지 역에서 멈추어야 한다. 경기도 연천의 간이역 신망리는 백마고지 역을 가기 전 세 번째 정거장이어서 북에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차에서 내릴 때면 한눈에 보기에도 소박한 신망리 역사가 다가온다. 이 때 「기찻길은 이어져 있으나 기차는 멈추어야 한다」는 문장은 이상하게도 틀린 것처럼 여겨진다. 승객들은 내리고 기차는 그냥 가던 길을 가기 때문이다. 기차가 역을 지날 때에는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청아하게 난다. 그러면 차단기가 내려지고 세모 깃발이 올라가고 빨간 전구가 돌아간다. 학교 가던 어린이가 멈추고 마을 노인도 멈추고 낡은 자전거도 멈추고 트랙터도 멈추고 군용트럭도 멈춘다. 신호소리가 끝날 때까지 멈추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기차가 원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듯이, 차단기가 올라간 뒤에도 기찻길 옆 코스모스는 한들 한들 아련하게 이어져 있음으로.



잡화점

원씨 할머니는 애교쟁이, 그림 솜씨로 유명하지만 애교도 만점이다. 철도길 건너면 바로 들어서는 골목길 어귀에서 잡화점을 운영한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라인댄스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강습이 끝난 후에는 댄스의 짝꿍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나온다. 연천군 신망리에 도착한 첫날, 햇빛이 따가운 9월의 어느 날, 모자를 사러 잡화점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안방까지 들어갔던 날, 할머니의 손동작이 빨라졌던 날, 어두운 방안이 밝아지기도 전에 순식간에 스케치북들을 쏟아 내리던 날 크고 작은 도화지 속에 가득한 꽃들을 보았다. 꽃으로 가득한 동산, 꽃 길, 꽃 밭, 꽃 담,,, 할머니가 꿈꾸어온 그리고 우리가 꿈꾸어온 마을이 그 속에 있다. 그림들을 넘기다 보니 어느 한 페이지는 무궁화 꽃으로 가득하다. 무궁화 꽃이 가득한 동산에서 놀고 있는 소녀, 활짝 핀 무궁화 꽃이 가득한 소녀 그리고 그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

“그림이 참 좋네요. 신망리는 살기 좋은 곳인가 봐요. 꽃 그림이 많아요.”

“우리 마을은 너무 좋아요. 서로 헐뜯는 일이 없어요.”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할머니.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일이 성서에도 나온다면 막 썰낸 고구마와 김치를 내어주신다. 그리고 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뜨거울 때 먹으라고 재촉을 한다. 내 남편은 상리교회 장로님이고 딸은 대학을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모른다며 다 내가 딸 같아서 먹을 것도 내주는 거라고 어서 먹으라고.



삼거리 슈퍼

삼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할머니는 한 눈에 보기에도 점잖은 듯 말 수가 적다. 이곳에는 과자나 사이다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팔지만 한 쪽 진열대에는 굵거나 가는 묵음의 소면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역시, 그 맞은 편엔 국물용 굵은 멸치 상품이 세로로 쌓여져 있다. 살림집과 이어진 가게의 뒤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 할머니는 이건 백일홍, 저건 봉숭아, 이건 대추나무, 저건 다래나무라며 하나하나 정원에서 살고 있는 식생을 자랑한다. 가게를 비워둔 일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앞 다투며 핀 올망졸망한 꽃잎 속으로 가을 햇살이 물이 고이듯 고요하다. 대문으로 난 작은 길엔 크고 작은 돌들이 편편히 박혀 있는데 마치 산기슭에 있다는 샘가로 안내해 줄 것만 같다. 남편과 함께 냇가에서 돌을 주어다 만들었는데 저 돌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또 저 길을 만드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어느새 할머니는 다른 사연 속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마당 안에는 과거의 날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나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아이스크림 통을 뒤적거리며 먹고 싶은 하드를 골라 입에 문다. 가게를 나서면 무지개 색 파라솔과 색 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앉으니 건너편에 있는 잡화점 건물의 옆모습이 오롯이 보인다. 파란 하늘과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집인지 상점이니 모를 앞 건물의 실루엣이 선명하다. 역광 때문일까 그늘져서 어두운 색조 때문일까 한 순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건물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반으로 잘린 듯 마감이 안 된 벽돌이 그대로 박혀있고 몇 개의 부식된 철골도 옷을 벗은 듯 드러나 있다. 그 사이사이로 양철 조각이 열기설기 붙어 있다. 고요한 시간이 순식간에 달아난다.

다래나무 집

다래나무 집 최 씨 할머니는 밝고 쾌활한 성품으로 잠만 자고 일어나면 집 건너편에 있는 삼거리 슈퍼를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할머니의 입은 언제든 재미나는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움찔거린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내 입가의 미소로 활짝 번진다. 잠시 후에 잡화점의 원 씨 할머니가 합류하니 다래나무 집 할머니는 “아, 우리 동네 애교덩어리!” 하며 반가워한다. 최 씨 할머니의 집 옥상에는 다래나무와 머루나무가 무성하다. 신망리에는 집집마다 다래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할머니의 집 다래나무가 으뜸이다. 작은 정원에도 가득 옥상에도 가득 9월 중순이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듯 다래나무에 다래가 열린다. 할머니는 달달한 요것이 우리의 토종 맛을 대표한다며 알알이 달린 연두 빛 열매를 한 움큼씩 따서 이웃집에 나누워 준다. 삼거리 슈퍼에서 바라다 보이는 할머니의 집은 작은 동산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할머니의 관심사는 10월에 열리는 붓글씨 대회에 있다.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서예반에 오늘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며 붓글씨 연습에 여념이 없다. 어찌나 집중하는지 서예선생님이 뭐라고 뭐라고 알림사항을 주어도 묵묵부답이다. 할머니가 특별히 연습하기를 좋아하는 글은 박목월의 시 <나그네>이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애달픔과 외로움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할머니는 외로움엔 관심이 없다. 오직 배고픔에 있다. 술하게 겪은 보릿고개며 6.25동란을 겪으며 처절하게 알게 된 배고픔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그렇게 몇날 며칠을 얼마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걸었으면 저녁하늘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엔 집집마다 술을 빚었다고 한다. 신망리에도 전통주 장인들이 많다며 그 중 으뜸은 순이 할머니라고 한다. 아, 얼마나 정감이 넘치는가. 술 잘 빚는 노인을 장인이라고 불러주는 이 마을에서 실컷 취하고 싶다.

술 빚는 집

짙마른 할머니의 손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인다. 집안이나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면 손수 술을 빚어왔다는 손이 할머니는 명성답게 어떤 아우라가 있는 듯하다. 쓰임을 다 알지 못할 부엌의 살림살이가 그렇고 그 식기구들이 갖고 있는 오래됨 때문에 그렇고 직접 농사지어 추수한 쌀로 술을 빚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뱀씨가 술이 되는 모든 단계의 기술과 기다림과 신비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술 빚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젊은이를 위해 할머니는 먼저 누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신다. 이 동네엔 없고 읍내에나 나가야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누룩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시중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한다. 누룩을 만들려면 우선 밀을 갈아 놓은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익반죽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꼭꼭 눌러놓으면 제 스스로 발효되면서 딱딱한 덩어리가 된다고 한다. 지금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으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느냐고 한다. 누룩이 준비되니 할머니는 땀쌀을 곱게 씻어 불리고 이스트와 향아리 그리고 맑은 물을 준비한다. 오래된 고무 다라이에 충분히 불린 땀쌀을 넣고 잘 뺀 누룩과 이스트를 넣어 버무린다. 이때에 술 나무 가지와 들국화도 꺾어 넣는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섞인 내용물을 향아리에 넣고 물을 붓는다. 맨 나중에는 담요로 따듯하게 향아리를 감싼다. 이런 상태로 5일이 지나면 거품이 일면서 술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5일장을 치룬 것이라고 한다. 어떤 집이든지 장례를 치르려 하면 참배객들에게 드릴 술과 떡이 있어야했기에 적어도 5일, 7일, 9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천 출신으로 잠시 타지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지금까지 연천읍 신망리에 살고 계시는 순이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장례기간에도 술을 빚었을 것이다. 신망리는 민통선구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원래 밭이고 논이었던 땅이기에 전쟁 시에 피난 다니느라 돌보지 못한 땅이기에 이제 전쟁도 끝나고 했으니 다시 땅을 일구려고 그 곳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뢰를 밟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날, 지뢰가 터졌던 날, 지뢰가 터지는 소리는 뒤로 하더라도 갈가리 갈린 신체며 피로 물든 붉은 흙덩이로 혼비백산된 혼을 다 잡고 만든 술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누룩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쌀을 씻고 불렸을까 어떻게 누룩을 빵았을까 어떻게 물을 길어와 독에 부었을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을까. 순이 할머니는 민통선 밭에 핀 들국화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느새 꽃을 손에 쥐고 있다. 가을 햇살이 와 닿는다. 이때에 벌씨가 술이 되듯 신비로운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나 햇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생애 전체를 걸쳐 척박했던 시간을 날날이 지나온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에서 아우라는 생겨나는 것이다.



이장님 댁

신망리 이장님은 마을 살림을 잘하기로 소문났다. 게다가 시집 「임진강의 봄」,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낸 시인이다. 이장님은 신망리를 리서치해보겠다고 며칠치고 다니는 우리에게 태풍전망대 안내해주겠다고 한다. 70대 노인인 이장님은 손수 운전을 하며 횡산리를 향해 가는 동안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품이 여간 멋진 게 아니다. 민간인 통제지역에 들어설 때에는 자동차를 멈추고 깎듯하게 경례하는 군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긴다. 민간인 출입 절차가 끝나면 태극기 이미지를 코팅한 종이 한 장을 차의 앞 유리에 끼워준다. 이 모든 행위는 다소 엄숙하다. 9월의 숲은 풀벌레와 새소리로 소란스러운데...

이장님은 다시 시동을 걸고 한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저 옆으로 휘돌아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여울이라고 알려준다. 여울은 물이 알아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을 말한다고 한다. 예전엔 복녘 땅이었던 이곳은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물이 산을 옆으로 비껴 돌아서 비껴갈 횡을 썼다는 횡산리, 이장님이 나고 자란 횡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동안 동생을 업고 여울을 건넜다는 횡산리, 동생을 업고 무시로 바라본 강물, 강물 속의 하늘, 하늘 속의 구름, 구름속의 물고기가 노닐던 횡산리, 지금은 남녘땅이 된 횡산리, 아무도 살 수 없는 횡산리를 돌아 돌아 올라가는데 덩그러니 묘지 하나가 보인다. 이장님의 조상의 묘라며 부모님과 함께 절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후손들의 효심 때문인지 폭격을 당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전쟁도 비껴가서 횡산리라는 별명을 얻은 이곳에서 이장님은 부모를 따라 미군 트럭을 타고 동두천까지 피난을 갔어야 했다. 그리고는 영영 다시 살지 못하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의 관리자, 박 씨는 오늘도 계단의 아래로 위로 뛰어다닌다. 동두천 출신이지만 군인의 아내로 연천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자녀 셋을 둔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젊은 만큼 밝고 사랑스러워 동네 노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일이 좋아 마을의 도서관 일을 맡게 되었다지만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살피고 다니기 때문이다. 1층에서 공무 중인 이장님을 존경하고 동네 어른들 좋아한다. 이를 증명하듯 관리자의 마을 자라는 끝이 없다.

“신망리는 꽃이 많기로 유명하답니다. 봄이면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구요 옥잠화와 금잔화가 차례로 피어나요. 여름이 되면 꽃들이 만개하여 그냥 땅에 똑똑 떨어지고 장미는 사시사철 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꽃들이 다 저가는 지금도 보세요, 담벼락마다 맨드라미가 얼마나 풍성한가. 다들 얼마나 잘 가꾸는지 심지어 파밭도 꽃밭처럼 가꾼답니다.”

오늘도 박 씨는 남자아이 한 명을 기다린다. 7살짜리 어린아이로 할머니와 단 둘이 산다고 한다. 연천어린이 집을 다녀온 뒤에 도서관으로 바로 오는데 아무래도 엄마와 같은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아 자청한 것이다. 또 적어도 한글은 깨우치고 학교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그이는 계약직이어서 올 해 12월까지만 근무하는데 그 이후가 걱정된다고 한다. 사실 이 마을엔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으며 그 중 상당수는 외국인 엄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초록 철 울타리 집

초록색 철조망 울타리는 언제 봐도 예쁘다. 연두색에 가까운 밝음 때문에 그렇고 가느다란 철의 가벼움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렇다. 예쁘고 미니멀한 격자 모양의 울타리는 낯지만 어엿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 울타리는 낡아빠진 양옥집을 가려주기도 하고 드러내주기도 한다. 집 앞엔 작은뜰이 있는데 붉은 파와 가는 파가 섞여있고 도라지와 토마토가 서로 섞여있다. 저 쪽에 열무 밭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집은 폐허가 된 집 마당으로 이어져 있어 돌아가며 들깨까지 심어놓았다. 가만히 보니 창고 옆에 한 노인이 허리를 구부리고 무언가 하고 계신다. 호기심이 일어 잠기지 않은 문을 살짝 밀면서 인기척을 내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할머니는 손에 벽돌을 쥐고 도토리를 뭉기며 껍질을 까고 있다. 그을리고 마른 손이었다. 거칠고 늙은 손이었다. 눈치를 채 할머니는 누가 들어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손자 놈을 어린이 집에 보내고 하루 종일 주워온 것 이라고 한다. 벌레가 많이 먹어 껍질을 까 두지 않으면 그나마 작은 열매를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고 한다. 조금 후면 손자 놈이 도서관에서 돌아오는데 밥도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마쳐야 한다고 한다. 올해, 도토리는 작고 불품이 없는 데다 양도 적다고 한다. 시멘트 바닥에는 도토리 껍질과 알맹이가 서로 섞여있다. 할머니의 손은 성한 것과 상한 것을 부지런히 골라낸다. 껍질과 알맹이가 구분지어 싸이는 곳에 어둠도 함께 싸여간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침 인사를 하는 내게 좀 도와달라고 한다. 까막 눈이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관공서에서 온 편지 한 장을 내미신다.

살펴보니 7살짜리 손자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봉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야 했다. 기한은 내일까지였다. 나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물어보았다. 큰 아들은 남편 장례식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들고 나가 제 이름으로 바꿔놓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큰 아들은 물론 둘째 아들과 딸까지 나를 별로 찾질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둘째 아들은 손자 낳이 세 살 때 내게 맡겨 놓고 가버렸다고 한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온 날 할머니는 저녁을 차려주었는데 먹지도 않고 가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아이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 힘들다고 한다. 내게 한 말인지 자신에게 한 말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할머니에게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집 거실은 아이의 것인지 할머니의 것인지 구분 못할 잡동사니들로 뒤섞여 있다.



빈 집

파란 기와를 한 이 건물은 보통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반쯤은 허물어져가는 듯하다. 초록색 철사로 된 문은 쇠장대가 가로질러 있는데 지나가던 마을 노인이 이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잠겨있는 문을 열어보였다. 시멘트 벽면 한쪽엔 연탄이 몇 줄 세워져 있고 그 중 하나는 쇠 집게에 집혀져 있다. 방문 앞엔 낡은 구두와 털 달린 슬리퍼가 놓여있다. 여성의 것이다. 부엌의 냉장고는 열려 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있다. 부엌살림은 하나도 없는데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위에는 반찬자국이 더러 붙어있다. 열린 방문 사이로 작은 창이 보인다. 창에서 가는 빛이 새어나온다. 빛은 반닫이 낮은 장과 장롱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비춘다. 따듯하고 어두운 방, 차분하고 적막한 방, 아늑하고 외로운 방. 무엇보다 작은 방. 나는 감히 신발을 신고 빈 방에 들어간다. 서랍 하나를 열어본다. 옷가지는 하나도 없고 먼지만 가라앉았다. 다른 서랍도 비어져 있을 것이다. 더 열어보고 싶었으나 집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집 앞엔 제법 넓은 마당이 있는데 온갖 풀씨가 날아와 제멋대로 자랐다. 그중 몇 개의 잎은 찬바람에 노랗게 변했다. 이상하게 꽃이라곤 들꽃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마당 끝에는 어느 시골집에서 볼 수 있는 창고가 있는데 온갖 박스며 고물들로 채워 있다. 홀로 남겨진 빈 수레에는 태극기가 사전으로 쓰러져 있다.

나중에 얻어들은 말인데 이 집에서 살던 할머니는 젊어 소박을 당하여 평생 혼자 살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한 병에 걸려 요양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 이곳에 터를 잡고 고물을 주워 생계를 연명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어디가 많이 아팠다는 얘기도 있고 머리가 좀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다. 어느 날 노인은 고물로 모은 삼백만원을 약장사에게 주고 약을 샀는데 이 약이 듣질 않아 억울해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청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붕이며 철조망 울타리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는데 이 날에는 울고불고 하였다는 것이다. 지붕은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건너 방으로 이어진 지붕까지는 고쳐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이 집의 지붕은 반만 새것이다. 노인은 60만 원만 더 내면 나머지 지붕도 새 기와로 덮을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다. 가을 하늘은 반만 덮인 파란 지붕과 쓰러진 수레에 꽃혀진 태극기에 맞닿아 서늘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다방거리

작고 작은 역, 그래서 매표소도 없고 매표원도 없는 간이역에 들어가면 마을을 소개하는 간단한 문구들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다방거리」이다.

<연천에서 다방이 처음 들어온 곳이 신망리이다. 연천가면 고물을 캐든 뭐를 하든 먹을거리가 있다고 해서 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남한테 사정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신망리’ 이름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려온 곳으로 전곡 땅 한 평에 십원, 십오원할 때 여기는 백오십원, 이백원 할 정도로 활성기를 맞았다.>

예로부터 변화가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역 주변에 형성되는 법, 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철길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에 옛 간판들이 간간히 달려있다.

「왕다방」, 「둥지다방」, 「준노래방」, 「미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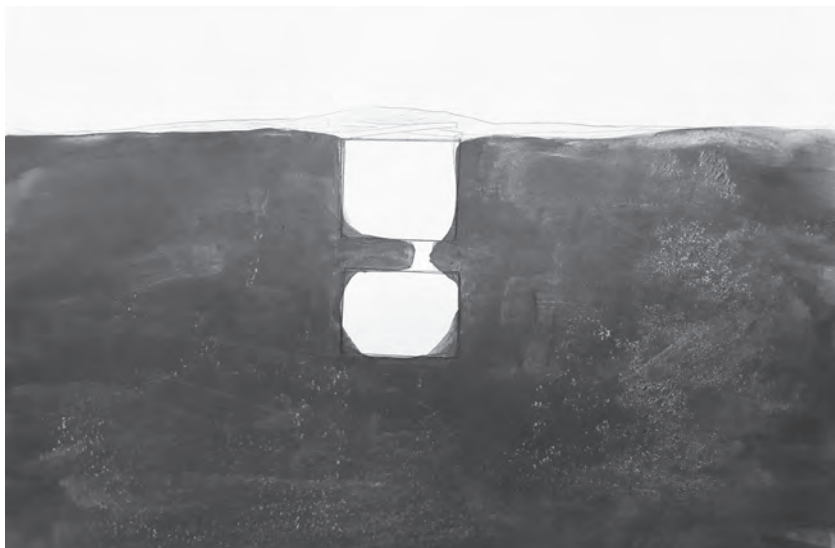
왕다방은 비어있고 둥지다방에는 어떤 여인이 살고 있으며 준노래방은 가끔씩 문을 열고 미용실은 영업을 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미군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지역에 목조로 된 집 100채를 지어주었는데 피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순으로 살게 했다고 한다. 이를 발판으로 시작된 마을에 미군은 떠나고 한국군부대가 들어서니 자연스럽게 식당이며 여관이 생겨났다. 군인들은 휴가를 받아 왕다방, 둥지다방 등을 채웠고 다방의 여인들은 불이 나게 미용실을 이용하였다. 슈퍼는 간식거리를 팔았고 쌀집은 곡식을 팔았으며 잡화점은 필요한 모든 것을 팔았다. 점차 늘어난 마을주민은 다방거리에서 저마다의 생계수단을 찾았다. 먹고 살기가 척박한 시절에 이 소식을 들은 외지인들이 합세를 하였다. 순대국집이 생기고 보신탕집이 생기고 개를 집단으로 기르는 집이 생겼다. 직업군인들, 군인들의 가족들, 면회 온 사람들, 왔다가 그날 가지 못한 사람들, 휴가 나와 이곳에서 먼저 하룻밤을 자는 군인들. 이로 인하여 다방과 미용실과 식당의 종업원들이 철길주변을 분주하게 오고 갔던 것이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신망리는 미군이 일기 예보라도 한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성해갔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도 많이 내리던 눈은 다 녹아버렸다.

두려움의 지도 - 자우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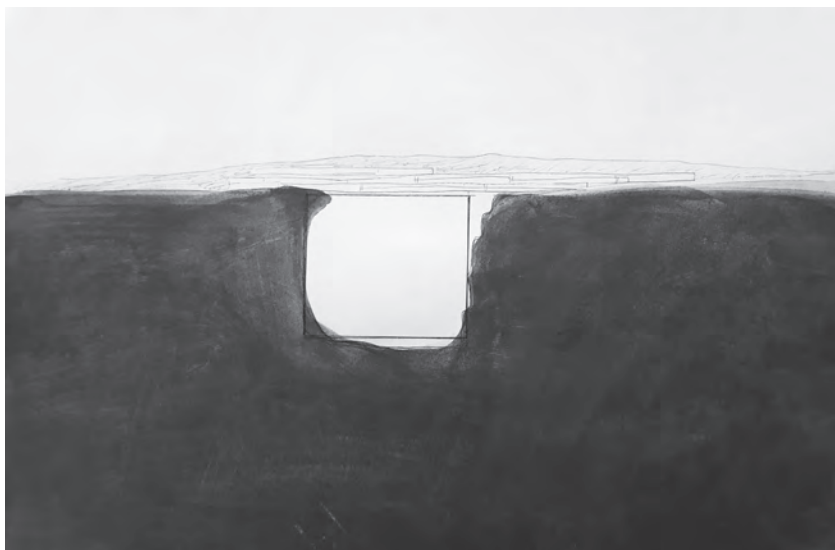
“누구나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었어요.”

공중폭격이 잦았던 한국전쟁 시절에는 곳곳에 방공호가 파여져 있다. 신망리 주민들도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방공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두려움의 지도'는 신망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 있는 어두운 방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드로잉으로 재현한, 일시적 은신처의 심리도이다.

* 이주민의 타 지역 기억을 포함하며, 일부 이미지는 방공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방공호 밑에 방공호를 또 뚫다. 작은 방만한 크기로 땅을 파고 지붕에 나무기둥을 얹고 그 위에 벧짚을 덮어 논이나 밭인 것처럼 위장했다.



밭에 땅을 거실만한 크기로 파서 수수깁을 얹어서 덮고 그 위에 짚을 깔았다. 그리고 흙을 덮고 그 위에 지푸라기로 덮었다. 빨간 흙이 보일까봐 잔디같이 보이려고. 땅이 단단하여 흙 층계를 만들어 내려갈 수 있었다.



부엌에도 파고 마루에도 뚫다. 나중에는 산으로 피난 갔는데 나무기둥을 네 개 깎아서 땅에 박은 후에 나뭇잎을 엮어 만들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네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는 판자를 짝 깔고 그 위에 벗짚을 깔아 흔적 없이 만들었다. 집 뒤에도 파고 산기슭에도 뚫다. 내 나이 15살 때 어머니와 함께 밤에만 뚫다.



집 옆에 있는 밭에 굴처럼 뚫었다. 몇 집이 함께 사용하려고 같이 뚫었는데 입구는 하나로 들어가면 몇 개의 통로가 더 있어서 각자 자기네 방에 숨었다.



미군이 폭격을 많이 했다. 강릉이니까 바다에서 함포도 많이 쏘고. 그래서 산속으로 갔다. 산 속에서 어른들이 방공호를 굴처럼 뚫고 그곳에 멍석을 깔고 이불을 갖다놓았다. 어두워서 호롱불도 갖다 놓았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집에 있다가 폭격소리가 나면 들어가 있곤 했다. 어머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굴속에 여러 갈래가 있었다. 인민군들도 따로 방공호를 조그마하게 파서 임시로 들어가 있었다. 또 죽은 인민군들을 묻기 위해 또 땅을 판 후에 묻고 갔다.



우리 동네는 공동으로 뚫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내무소에서 파라고 시켰다. 개인방공호는 팔 새가 없었고... 우리 큰 집도 여기에 숨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회관 같은 곳이었다. 돌이 많은 곳은 파질 못하는데 여긴 땅이 좋아서 땅이 잘 파졌다. 비행기가 뜨면 다 숨었는데 난 거기에 가지 않았다. 방공호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죽었다. 땅에 돌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지막한 곳에 나무를 몇 개 걸쳐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숨었다.



인천에서는 함포사격이 굉장했다. 그때는 방공호 안파면 안 됐다. 누가 파라고 해서 판 것이 아니고 각자 알아서 뚫다. 우리 동네가 지금의 연수구 쪽인데 한 20가구나 되었나 집들이 전부 산 밑에 붙어 있었다. 남들이 파니까 우리도 산 아래에 뚫다. 바로 집 뒤에. 그런데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피난을 갔다. 뭘 갖다 놓을 새도 없이 지푸라기만 갖다 깔고 한번 누워보지도 못하고.



완도는 섬이어서 전쟁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동네사람 한 사람이 산에 숨어 있다가 색출을 당하였다. 나머지 동네사람들이 합심해서 빨갱이라는 그 사람을 바닷물에 쳐 넣은 후 죽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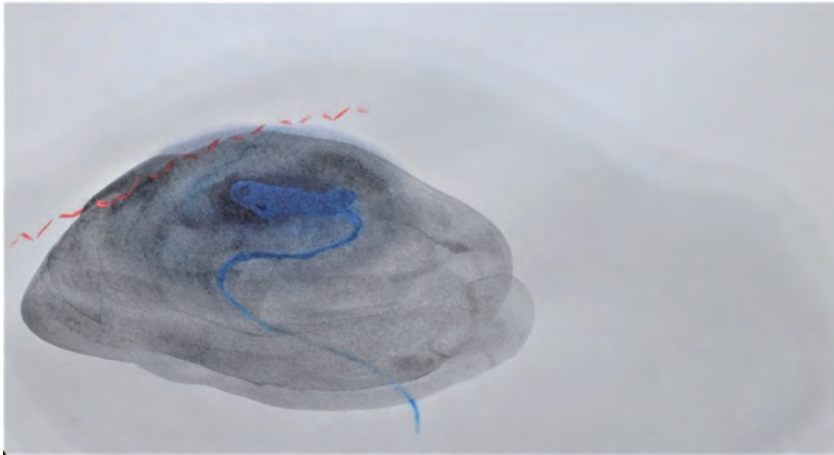
부모님과 함께 피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파놓은 방공호에 들어가 살았다. 입구가 작아 기어서 들어갔고 한 가족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에서 두 달 동안 살았다.



전쟁 후에 연천에 자리를 잡았는데 동네사람들이 모두 사격장으로 몰려갔다. 사격장 옆에 큰 구덩이를 파서 숨어 있다가 사격을 하면 우르르 몰려가 탄피를 주었다.

무의식의 지도 - 자우녕

연천은 전쟁이 나면 주민들이 일제히 퇴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양평이나 가평으로 이주해야 한다. 무/의식의 지도는 신망리역에서 상리약수터를 찾아가는 길과 비상시 피난루트를 통해 목적지까지 찾아가야 하는 길을 겹쳐서 그려 접경지역에서의 일상과 비상, 생명과 죽음이 혼재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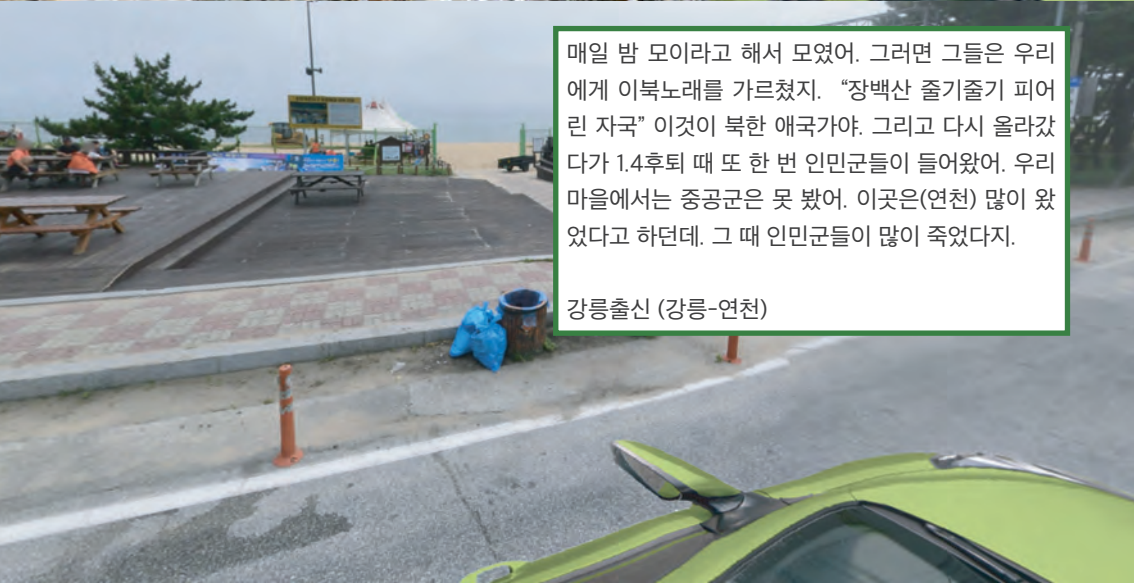
피난길 - 진나래

전쟁과 냉전의 징후는 아직도 한반도의 곳곳에서 정치적, 문화적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 후방의 삶을 누리는 동안 전방으로서 역할하며 시간을 더디 보내었다. 그 중에서도 수복지구인 신망리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새로운 희망’을 담아 터전을 닦은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피난, 즉 전쟁과 냉전으로 인한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다년간 진행해온 냉전의 가족사, 구술 리서치의 연장으로, 신망리에서는 주민들의 피난 경험과 관련한 구술을 모아 이를 기반으로 피난길을 현대의 시공간에서 역추적하는 작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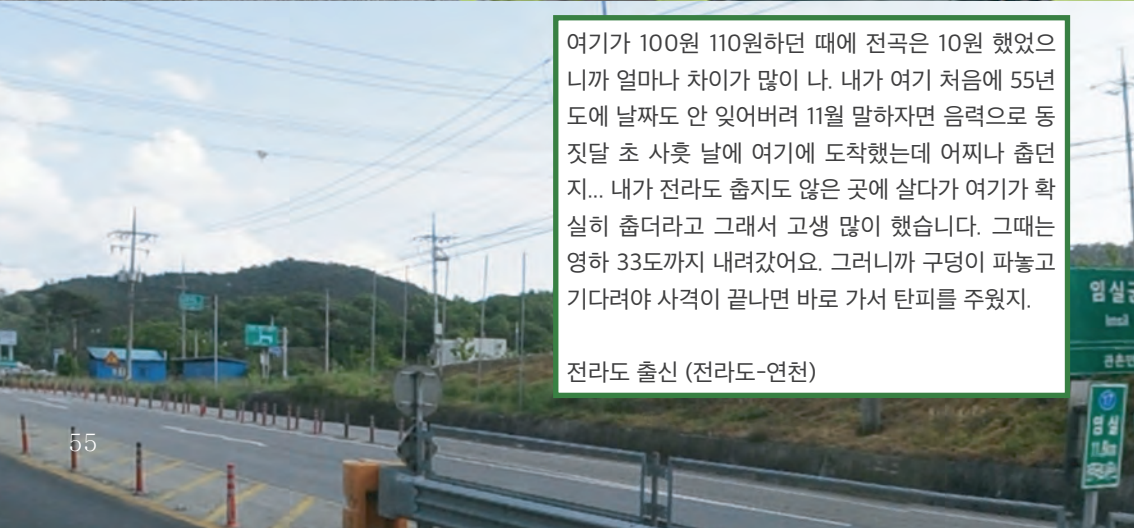
매일 밤 모이라고 해서 모였어. 그러면 그들은 우리
에게 이북노래를 가르쳤지.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
린 자국” 이것이 북한 애국가야. 그리고 다시 올라갔
다가 1.4후퇴 때 또 한 번 인민군들이 들어왔어. 우리
마을에서는 중공군은 못 봤어. 이곳(연천) 많이 왔
었다고 하던데. 그 때 인민군들이 많이 죽었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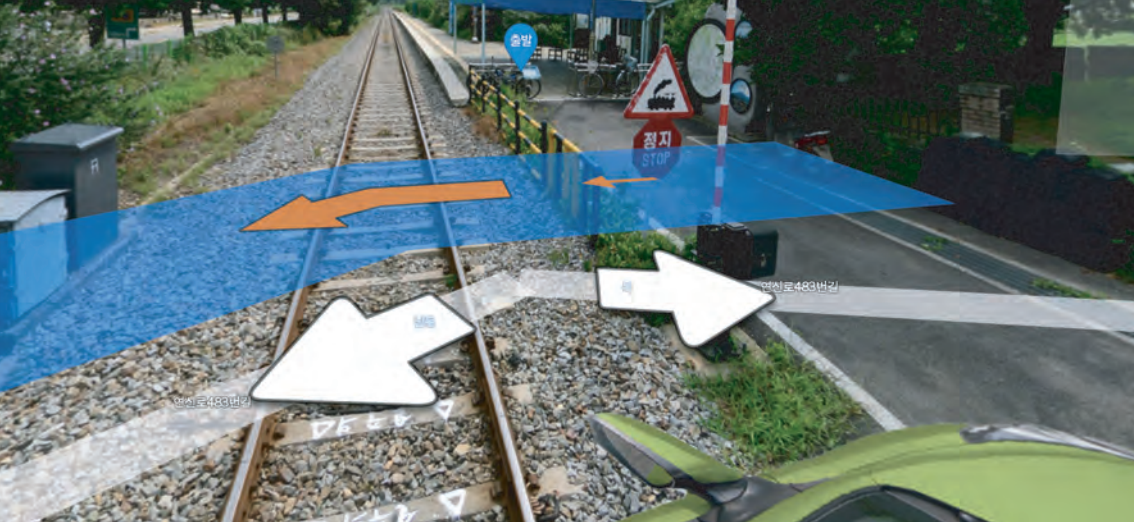
강릉출신 (강릉-연천)



여기가 100원 110원하던 때에 전곡은 10원 했으
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내가 여기 처음에 55년
도에 날짜도 안 잊어버려 11월 말하자면 음력으로 동
짓달 초 사흘 날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어찌나 춥던
지... 내가 전라도 출신도 않은 곳에 살다가 여기가 확
실히 춥더라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영하 33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파놓고
기다려야 사격이 끝나면 바로 가서 탄피를 주웠지.

전라도 출신 (전라도-연천)





삼거리 산천에서 자라 16세에 전곡 은대리로 왔지 거기에서 살다가 피난3월 후퇴 때, 강원도 연천 3학년 때 8,15 해방을 맞았지. 그 해 2학기 때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전엔 일본말을 배웠지. 나는 연천인민학교에 다녔는데 5년제야. 영어대신 로어를 가르쳐주더라고. 전쟁이 나서 경기도 천호동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 2년 다녔어. 그 시절의 학교는 아이들이 많아서 졸업생이 한 반에 70명씩 되었었지. 그리고는 다시 연천으로 돌아왔어. 그때 여기는 의무교육을 시켰는데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서 학교에 안가면 법에 걸렸지. 나는 다행히 우리 집에서 원하던 대로 중학교에 못갔어. 부교장덕분에. 집이 가난해서 발일을 도와주어야 했거든 그건 좋은데 글썄 중학교에 못가서 세라복이 원이 되었지 뭐야. 나중에 성인을 위한 중학교에 그러니까 야간학교에 2년 다녔지. 지금도 전쟁 통이라 평화롭지가 못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통일도 못보고 죽게 생겼어.

연천출신 (산청-전곡-연천-천호동-연천)



전쟁이 나니까 군인트럭을 타고 피난을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연천 북면에 살다가 동두천으로 갔지 그리고 수원과 용인을 거쳐서 다시 연천으로 돌아온거야. 신망리 20호로. 남편과는 인민군으로 징병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내 나이 20살에 헤어졌어 그때, 딸이 뱃속에서 4개월 태인데... 남편과는 겨우 4개월 살았지 뭐야. 내 딸은 전국에 사는데 우리 딸이 벌써 69살이네. 예전에는 신망리가 대단했어. 아이들이 가득했지. 집이 100채이니까. 연천에서도 신망리가 제일 먼저 수복되었어. 그리고 여기 집들이 새로 지어지니까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터를 잡았지. 아, 옛장수 말이 신망리는 애들 낳는 공장이라고 했단니까. 저 다방거리 있지 않아? 철길 넘어로. 거기에 다방들이 즐비했는데 나는 그 중에 희다방에서 주방일을 봤어. 100호 이외에 외지인들이 주로 다방을 이용했고, 주로 후방에서 여기로 옮겨와 살았지. 그렇게 번창했었는데...

연천출신 (연천-동두천-수원-용인-연천)



우리 어머니가 미군이 폭격해대는 소리를 무척 두려워 했거든. 노랑 병이 들었다고 했을 만큼 방공호 밖을 나오지 않아 얼굴이 노래져 있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밥을 차려서 방공호에 계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곤 했지. 한 번은 옆집에 떨어진 포탄으로 불이 났는데 우리 발까지 불뚱이 튀어서 방공호 위의 지푸라기도 타고 있었어. 그런데도 폭격소리가 무서워 방공호 밖을 나오시지 않는 어머니였단니까. 아마 그 속에서 더욱 놀라셨을 것이야. 언젠가는 중공군과도 방공호에 같이 숨어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일이 없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을 폭격이 없으니 우리 어머니에게 맘 편히 하라는 뜻이었지. 아무튼 나는 이 쪽이나 저 쪽에서 군사 훈련한다고 황광 소리를 내면 그냥 전쟁 생각이 난다니까.

연천출신 (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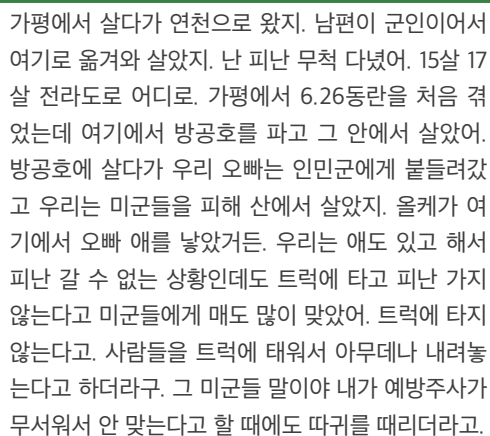
휘발통 있잖아 그때 집들은 거의 다 목초로 된 집이니까 전쟁통에 다 타버렸지 뭐. 휘발통이 터지고 난 뒤에 기관총을 쏘니까 불이 붙을 수 밖에. 비행기가 폭격을 하기 전에 휘발통을 먼저 뿌리는 거야. 그래서 랑 터지면 비행기가 낮게 내려오면서 폭격을 해대는 거지. 10탄에 1발이 불발이고 나머지 터져서 다 타는 거지. 개인방공호를 파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똘. 내무소에서 파라고 해서 봤는데... 비행기 뜨면 어디라도 숨는 거야. 그래도 우리 동네사람들은 거기(방공호)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나는 비행기 뜨는 거 봐서 밤나무 뒤에 숨었지. 숨으면서 다 봤는데... 군인들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냄새가 지독하거든, 그냥 죽은 그 자리에 시신을 묻더라고.

연천출신 (연천)

낮에는 미군이 폭격을 해대니까 숨어 있으려고 방공호를 파지. 밤에는 중공군이 이동하기 때문에 중공군을 피해 숨기 위해서도 파고. 중공군은 이동할 때에 여자나 남자더러 길을 안내하라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땅을 판 흔적만 있으면 중공군이 들어와. 우리는 어두 컴컴한 데서 숨어 있는데 중공군 손에 머리칼이 잡히는 데로 방공호에서 끌려 나갔어.

연천출신 (연천)





가평출신 (가평-전라도지역-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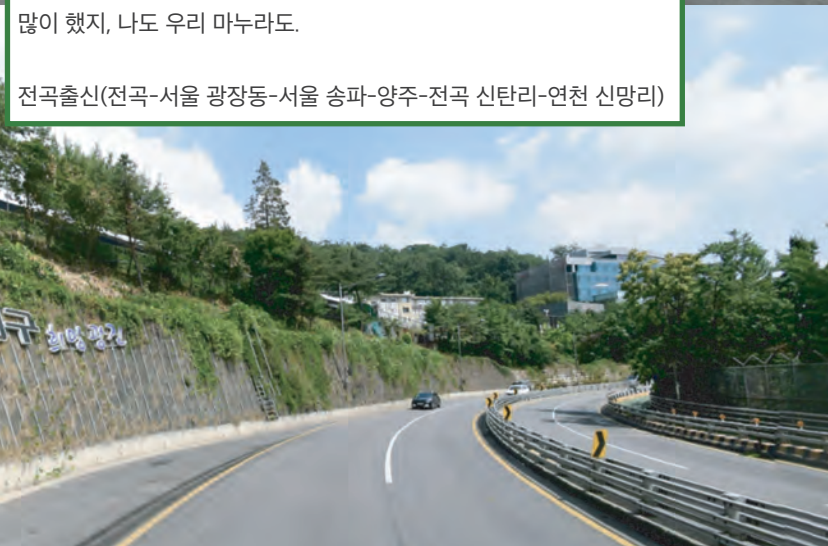
여기는 외로운 때도 많지 뭐. 형편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집에 있기 싫어서 노인 회관에 오지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집에서 걸어 올만한 거리니까 걸어서 오지, 집이 이 동네니까. 여기엔 멧돼지가 많아서 농사를 다 망쳐놓고... 예전에 철원은 살만했었는데 그때는 이북이었지, 여기도 이북 땅이었잖아. 나는 철원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야반도주 했지. 농사를 지어서 많이 쌓아놓았는데 몸만 나왔지 몸만.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같이 걸어서 나왔지. 그때 잘못 걸리면 매를 죽도록 맞았지. 그때 동두천까지 갔지. 그래야 남쪽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었으니까. 그래 동두천까지 가서 열차를 타고 인천에 우리 삼촌이 계셔서 인천까지 갔지. 터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고생도 참 많이 하셨지. 10 식구가 대식구 아니여? 처음엔 초가지붕에 살다가 나중에 집을 지어서 살았지. 그때 아버지는 미군부대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어려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 거기에서 전쟁을 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내가 인천하역 병기공장에 다녔었는데 그 때 그 소식을 알았어. 그런데 불과 3일 되니까 서울이 수복되었다고 하더군. 인천은 바닷가니까 무조건 함포사격이야. 폭격이 아니고 무조건 함포에서 쏘아댔지. 함포는 시내 쪽만 쏘아댔지. 산자락까지는 오지도 않았어. 그때 방공호를 형식적으로 봤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인민군들한테 쫓겨서 떠났지. 그런데 우리 병기공장이 인천에도 있지만 부산에도 있었거든. 그래서 형제들 다 놓아두고 걸어서 부산까지 걸어가야 했었는데 대전에서 막혔지 뭐야. 그래서 고향이 그 근처니까 고향으로 갔지.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 다 고향집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만났지. 어머니는 연천에 와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25년 됐네. 우리 고향이 천안인데 그래서 천안에 모셨지. 내가 작년에도 명절에 다녀왔지. 우리 조상님들이 다 거기에 계셔. 내가 성이 박가여. 거기에 우리 박씨 촌이 있지. 내가 고향을 떠나던 때가 7살 먹어서 떠났는데 그때 박씨가 200호가 살았는데 지금은 50호도 안살아요. 가봤자 젊은 애들은 다 떠나고 노안들만 남았던데. 병천에서도 20리는 떨어졌지.

천안출신 (천안-동두천-인천-천안-연천)



어느 날 폭격소리가 난거야. 전곡한탄강에서 동두천 쪽으로 쏜거야. 나 중에 알고 보니까. 동두천은 한탄강 남쪽이었거든 그러니까 남쪽으로 쏜거지.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이 후퇴했을 때에 그 사람들 밥을 해다 주었거든. 산꼭대기에 패잔병이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밥을 해서 지게로 지어다가 밥을 해주니까 그 죄로 붙잡혀 들어갔지. 우리 아버지 생신이 1월23일인데 우리 집은 그때 불이 나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서 생일을 해드렸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 이후로 끌려 올라간거지. 그 전에 우리 집은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가 다시 전곡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끌려 들어간거야. 그 때는 거기가 이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려고 고개를 넘으니까 아군들이 조사를 하더니 차에 싣고 (서울)광나루에 내려다 놓았지. 천호동 옆에. 피난민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 우리 동네사람을 만해도 50여명 되었었는데 우리는 걸어서 송파로 갔지. 거기는 양계장이 많았거든 그래서 일할 거리가 있을까 하고. 우리뿐이 아니라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서 거기를 겨우 얻어 살았지. 그때가 4월쯤 이었는데 모내기를 배워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양주로간거야. 17살 때 거기에서 신부름을 하면서 살다가 수복된다고 해서 의정부로 다시 왔지. 의정부에서 미군트럭 2대에 120명이 나누어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지. 거기가 신탄리야. 신탄리에 내려주더라고. 그런데 밤에 엄청 춥더라고 5월 말쯤 되었어도. 그 때에 여기가 다 풀밭이었잖아. 원래 밭이었지만 풀밭으로 변했더라고 그래서 소로 밭을 갈아서 농사 지면서 살게 되었지. 여기 옆에 (초등)학교자리 있잖아 거기에 군인이 목재로 100채를 지어주었지. 그런데 지금은 1채가 그냥 버티고 있지. 나머지는 다 헐리고. 군인들이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틀을 짰다고. 3칸을 만들려고. 지붕까지 해준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있고. 나무 박스를 뜯어서 벽을 채들고 그 위에 뽕을 개서 발랐지. 손으로도 바르고.... 그렇게 집을 짓고난 후에 가족을 데리고 왔지. 숯 들고 이불 들고 와서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61년도에 장가를 갔지. 그 이후로도 참 고생 많이 했지, 나도 우리 마누라도.

전곡출신(전곡-서울 광장동-서울 송파-양주-전곡 신탄리-연천 신망리)



하늘, 바람, 시

신망리 주민들은 서예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라 부른다.
자식들과 친구들이 떠나고 배우자를 여의어도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라는 것이다.

하
늘
바
람
시

진나래



하늘
마람
시

하늘 마람 시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런 불속에 흰 아양 찔레
꽃의 한송이 같은 것 당신을 사랑하는다는 말을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려 흔들리는 나그네가 당신
이 나를 사랑하는다는 말은 우스운 별들을 한꺼
번에 쓸아나는 거대한 밤하늘이 나 어둠 속에
서도 희미히 일슬이 빛나고 절망 속에 서도 키가
크는 한 마리의 말 일마나 놀랍고 황홀한 그 백
이 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다는 말은

마음이 이를 취할 때 이를 찾아 가면 무도인
은 것 같아 도방저 맞아 주는 듯이 있어 오
바라질 줄에 맞쳐 그 때 부리며 희한이 하는 기
쁨을 취하여 보니 그 인공을 만났을 때 그 기
미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되살려 주는지 모르
심을 잊어라 꽃과 말아서 취하여 맑고 향기
난 색과 맛과 향과 오색과 향과 향과 향과 향과
취

나 잊고 바라보네
그저 어디든 자주
그저 시자
꽃샘이 미경



밤새에 지날 일
아침 별빛 나는데
꽃피었네
봄날에 꽃피었네
하늘에
구름
자주
구름



노아미 데어


경기북부 중에서도 강원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신망리는 수북지역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하였으며,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육군사단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마을주민들의 삶이 전쟁, 군부대와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진행했던 미군부대 관련 작업 <No U.S army there>의 연장으로 미군이 보급한 구호주택에 관련된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인민군, 미군, 육군과 마을주민들의 연결지점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록한 작업은 <No army there-Sinmangri>라는 제목으로 별책부록 <신망리의 간판들>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경희

잘들어야들리는노
아미데어신망리주
의깊게듣고오해하
지말자말하는자들
는자속이고속아도
기분나쁘지않은신
망리마을아카이브
행복지로신고요망
기쁨주의©이경희



철길만 있었고 기차는 안섰지. 우리는 역을 만들었지. 여기는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길을 미군들이 와서 길을 다 내고, 집을 딱 백채를 지어줬어. 여기 신망리가 그런데야. 연천에서 제일 빨리 수복 된 데가 여기야. 연천군보다, 전곡보다 더 빨리 됐으니까. 왜는 여기 미군들이 있었으니까 제일 빨랐지. 미군들이 1954년도에 수복하고 그 이듬해에, 집을 지어줘. 누구 중령하고 만나서 착착 해서 집지어주기로 하고, 정말 옛날 얘기다. 미군들 나무 막대기 하나만 주워가도 “이리와!” 하면서 다시 갖다놓으라고. 못 가져가게 “갓뎀!” 하고. 여갓다가 잔뜩 쌓아 놓은거 하나 갖다가 집에 놓으면 어떻게 알고선 뜯어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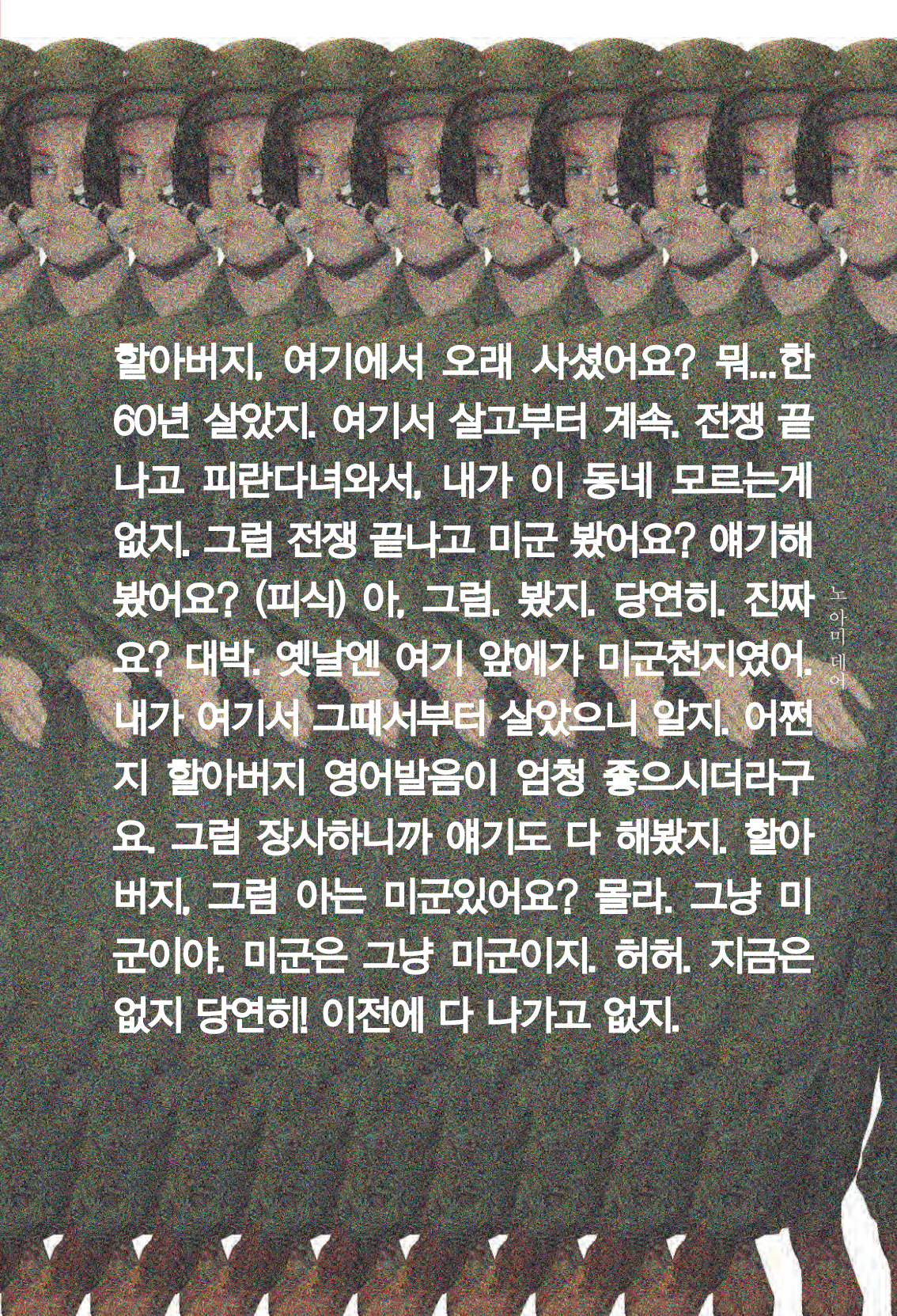
아이참. 그 때는 미군들 쓰레기통이 많았지. 미군 쓰레기통. 고름, 쓰레기통이 저 골짜기에도 있었고 저 너머에도 있었고. 응 골짜기마다. 그냥 멀쩡한 거 갖다 버리는거지. 칼도매도 있고. 포알도 있고. 별것을 다 갖다 버리지. 여기와서 고물 캔다고, 쓰레기통을 파는 거야. 포 껍데기, 총알 껍데기, 강통. 길에서 고물 주워서 파는거야. 미군은 갖다 묻어. 골짜기에 묻어 놓으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돈버는 사람. 전부 고물 캐가지고 돈버는 사람이야. 전부 고물 캐가지고. 이 건너가 사격장이야. 사격장 있는데 포알이 이렇게 있는데. 멍텅구리라고 이만한게 있는데 그거 하나 주우면. 그게 강해. 땡고같은거 뚫으는거 그걸 멍텅구리라고 하거든. 스댕있지? 그거 하나 주우면 쌀이 한 말이야. 스댕으로 돼서 단단하지. 사격장이 이제 없어졌어. 길이 났지. 군인들이 전방으로 들어가고 사격장도 들어가고. 사격장에, 연구장이 들어왔어. 경기도에서 연구실이 들어왔어. 큰 게 들어왔어. 미군들이 한달에 한 번씩 사격하고 나가고, 포 연습하고. 그 앞에 산에다가 막 포를 쏘아보면 포알을 멍텅구리 주우느라고 사람이 죽어도 몰랐어. 많이 죽었지 사람이. 많이 죽었지. 소리? 아유 크게 나지. 팡팡. 연천에 온 여자들이. 연천에 하룻밤 잤다가 도로 나가. 전쟁난 줄 알고. 후방에선 포 소리는 못 듣잖아. 여긴 노상 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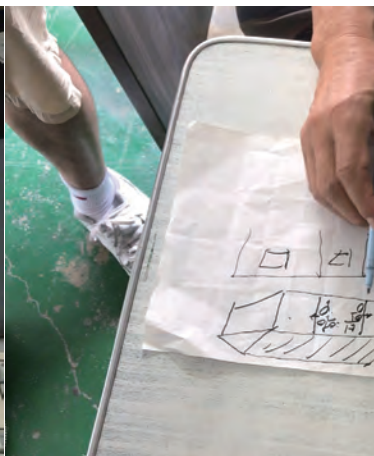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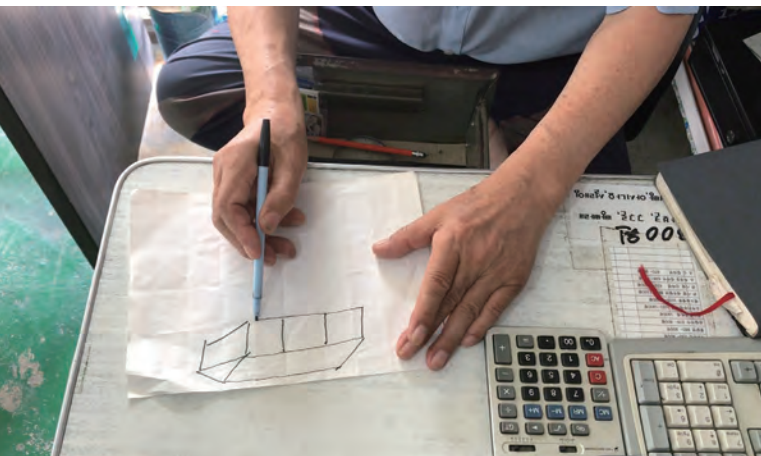


지뢰
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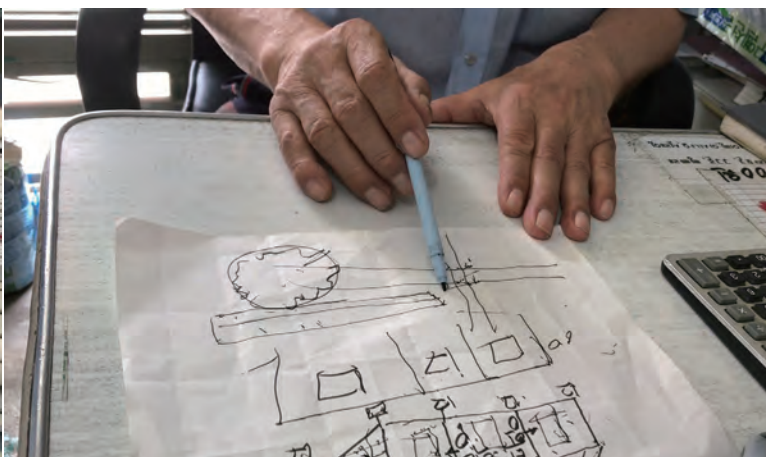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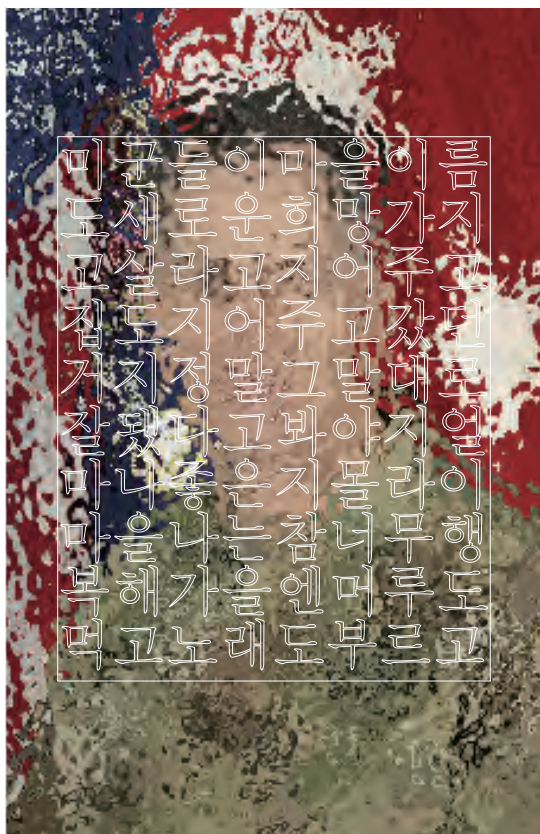
할아버지, 여기에서 오래 사셨어요? 뭐...한
60년 살았지. 여기서 살고부터 계속. 전쟁 끝
나고 피란다녀와서, 내가 이 동네 모르는게
없지. 그럼 전쟁 끝나고 미군 봤어요? 얘기해
봤어요? (피식) 아, 그럼. 봤지. 당연히. 진짜
요? 대박. 옛날엔 여기 앞애가 미군천지였어.
내가 여기서 그때서부터 살았으니 알지. 어쩐
지 할아버지 영어발음이 엄청 좋으시더라구
요. 그럼 장사하니까 얘기도 다 해봤지. 할아
버지, 그럼 아는 미군있어요? 몰라. 그냥 미
군이야. 미군은 그냥 미군이지. 허허. 지금은
없지 당연히! 이전에 다 나가고 있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은거야 이거.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보면은, 중앙에 요게 부엌. 부엌인데 부엌에서 여기 솔이 양쪽으로. 요쪽으로 불을 때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요쪽으로 때야지. 그리고 이 뒷면, 후면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창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셋. 창문이 세 개야. 세 개고. 방에도 여기 부엌도 마찬가지로 부엌문 있잖아. 그 다음에 요걸 뭐로 했냐면 지붕을 갔다가. 죽대기 있잖아. 몰라? 제재소에서 보면 쓸모없다고 싹 치워 버리는 거. 그걸 전부 가져다가 여기다가 얹은거야. 얹고 그 감자박스 있잖아. 감자박스 그 종이. 위에다가 루핑(Looping). 루핑 몰라? 기름먹은 타바고 있잖아 타바고를 갔다가 둘둘 말은게 있어. 그거. 그게 루핑이 이만큼 넓어. 넓은데. 그게 말아. 그게 타바고로다가 중간중간. 타바고로다가 만들어. 그게 루핑을 그 위에다가 감자박스로다 루핑을 덮은거야.



그리고 이 밑에는 자. 투바이포(two by four) 있잖아. 각구목 있잖아. 각구목. 그걸 잘라서 한번 자르면 이거 기둥이 하나야. 기둥 하나 나와. 하라고 했으니 했지. 나무로 이걸 만들면 금방 썩을거 아냐. 그리고 이 벽은 어떻게 하나. 벽은 칸자(竿子)를 엮었어. 칸자란게 뭐냐면. 나무대기를 가로질러서 대. 가로지른 다음에 여기를 수수깡. 수수깡 같은걸 싸리 같은걸 세로로 대. 여기다가 촘촘히 두 개를 엮어. 엮은 다음에 진흙으로다가 여기다 발라 넣는거야. 요걸 두 개를 엮는 걸 칸자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건물은 미군이 지었는데, 이런 건 다 한국 사람이 했어요. 우리가 다했지. 미군이 하고가면 우리 민간인이 다. 요. 요것만 지어준거야 딱. 골조만 딱 지어놓고, 우리가 알아서 다 만든거야. 그렇게 요걸갔다가 짓구, 근데 이게 한 두 채가 아니고 무려 100채야. 100채면 생각을해봐. 아주 써전(surgeon), 써전을 한거야.



름지고던로일이행도고
이가주갓대지라무루르
을망어고말야몰너머부
마히지주그보지참엔도
이운고어말고은는을래
들로라지정다종나가노
군새살도지됐나을해고
미도고집겨잘마다복먹

NEWHOPE COUNTRY

New Hope is a city in Madison County, Alabama, United States / New Hope is a town in Portage County, Wisconsin, United States / New Hope is a borough in Bucks County, Pennsylvania, USA / New Hope is a town in Collin County, Texas, United State



才人瀑布

Jane Falls

할아버지,
제인폭포가 뭐예요?
이름이 제인이에요?
제인은 미국이름 아니예요?
제인은 왜 제인이에요?

아니야. 재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 아내가 상당한 미인이었어. 근데 뺏을라고. 고을에 대감이 그걸 뺏을라고. 줄타기를 하라고. 허리에 줄을 매고서 타다가. 그 남자가 죽어야해. 죽어야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 허리줄을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
아
미
데
어

진짜? 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그 재인 아내가 대감의 코를 물었데. 그래서 홍월리라고 불러. 코를 물어가지고 코물리, 코물리 하다보면 홍월리. 그런 전설이 있어.

그랬구나.

나는 재인이 외국말 같아서...

그게 아니네요. 재인.재인.제인.제인.

no

나는 6.25때 경기도 광릉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수복
될때, 아버지가 안고 들어온거죠. 여기가 동네가 없던 동네
니까. 그러고 이제 100집을 저 뒀잖아. 동네를 만들 때, 미
국사람이 해 났으니까 영어로 하는데. 이 동네 이름을 짓
자. 동네이름을 어떻게 짓으면 좋겠냐 했더니. 거기서 나온
말이 뉴, 새롭게 흡,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마을 컨츄리
해가지고 뉴홈컨츄리,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그 말을 한자로 신. 호프. 희망이라는 망자. 신망해
서. 신망리가 된 거예요. 결국 그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신망리라고 해놓고, 여기가 이제 동네가
좀 커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잖아요.
나라가 60년대 되기 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여기가 그 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된 게 뭐냐면. 헝가리 사
육장이라고. 헝가리 사육장. 지금은 없어지고 에스오일 건
물이 들어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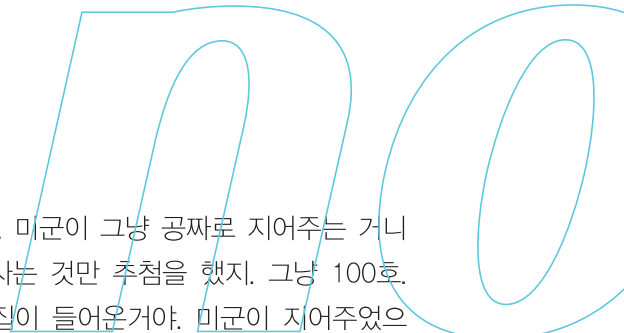
거기서 인제 사격을 해. 밤새도록 쏘는거야. 그니까 여기 공무원들이고 뭐고 오고 그러면 딴 데서 발령받아 오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고 갈 정도고, 선생님들도 발령받아 왔다 안한다고 간다는 그런 동네였어요. 밤새도록 대포를 쏘니까. 총도 아니고 포를 쏘니까. 중간중간, 이제 쉬잖아요. 쉬 단말이야 고 쉴때, 양쪽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 가지고 고철, 그걸 줍는거야. 그거 주우면 그게 이제 수입이 째깍하고 생계유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됐지. 몰려오게 됐고, 여기 전쟁 잔여. 그야말로 고철이라는거. 많았잖아요. 그거 인제 전방이고 그거 캐러오고, 그거 해오고 폭발물 같은 것도. 불발탄 같은거 뇌관 제거 같은거 한다고. 기술없으니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없고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면서 하게 됐고. 그 담에 군부대가 주둔하다 보니까, 또 작은 집집마다 군인가족이 다 있었지. 그래가지고 어울려 살면서 동네가 형성 돼 가지고, 그래도 제법 큰 자연부락이 된 거예요.

no.

오십년도 넘었지. 피란 나갔다가 초성리라는 데 있지?
거기서 살다가 일로 이사를 했어 결혼해가지고. 이 집
에서 시아버지하고 계속 살다가 자식들 낳아서 다 출
가시키고. 그리고 영감마누라 둘이 사는지가 이십년
됐나. 미군이 지어준 거야 이게 다. 그 자리에 새로 짓
고 사는거야. 원래 있던 집 자리에. 임진강 건너 왕진
면. 거기가 원 고향이야. 그 전에 북한이 가까우니까
6.25때 피란을 나갔다가 또 왔다가. 또 피란을. 여기
저기서 쳐들어오니까 갔다가 또 와서 사는거야. 두번
을 피란 갔다 온거지. 거기서 피란나가서 와가지고. 결
혼해서 여기로 왔지. 수복되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줬
어. 그냥 미군이 지어줘서 일자로다 이렇게 방 두 개
에다 부엌하나. 이렇게 방이고 부엌이고 100호를 지
어줬어. 1.2.3.4.5.6.7.8.9.10. 일렬로 쪽 가고, 다시 반
대로 1.2.3.4.5.6.7.8.9.10. 옛날에 내가 이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했어. 여기 경기가 좋았어. 군부대가. 그러
다 늙어서 며느리한테 물려줬지. 그러고선 이제 할 사
람이 없잖아. 이제 하겠다는 사람도 없지.

나는 옛날에 여기가 무서웠어. 할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그때부터. 여기 살았어. 처음엔 낮이고 밤이고 캄캄. 찌렁찌렁 울려. 앞산이 사격장이었으니까. 저 산 너머에서 캄캄. 번쩍. 무서워서 살기 싫었지. 우리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얼마 안됐어. 이제는 앞집 옆집 다 친구들이야. 바쁘면 먼저가. 혼자 먹어도 돼. 얼른가.고마워.

노아미 데이



그럼, 추첨을 했지. 미군이 그냥 공짜로 지어주는 거니까. 장소 몇호에 사는 것만 추첨을 했지. 그냥 100호, 수복 당시에 100집이 들어온거야. 미군이 지어주었으니 경쟁이고 뭐고 할 것 없지. 여기 온 사람은 옆에 초등학교 있지? 거기다가 천막을 지고 살게하면서 여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씩 준거야. 세 칸. 요기 가다가 보이지? 보이는데 요쪽에 있는게 수복 당시에 지어준거야. 그거는 100호 지어준거 그대로 있어. 서울 사람이 사가지고 지금. 여기도 집값만 비싸지. 한 일 억하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았지. 그 때 난 열두살. 고향은 중면 학수리라는데. 여기서 조금 4기로 들어가면 돼. 대왕면. 지금 세곡동 되는데. 옛날에 대왕면이 경기도 광준데 지금은 서울특별시 세곡동이야. 아 그 때 아주 틀림없이. 열차타고. 그 때는 미군이 들어와서 데리고 나갔어. 세곡동에는 트럭. 트럭타고 가서 갔어. 들어올 때는 열로 모여라 하면 그 때는 군인차가 땡겼으니까 여기. 여기 땡기는 사람 출입증이 있었어.

나도 고향이 여기야 왕진면. 일 할 게 많지 저기 안에. 안 일 해. 추석 때가 되니까. 수정과니 뭐니 다 해놔어. 우리는 이렇게 농사 저서 애들 주고. 그 맛에 사는 거지 뭐. 잘 살아 좋아요. 그냥 한갓지고. 조용하고. 집에 오면 해가 들고. 집이 제일 좋아. 암만 좋은 것도 싫어. 빌딩도 싫어. 그냥 이렇게. 이게 다 우리꺼지. 이 집은 25년전에 브로꼬(블록)으로 지었지. 옛날에야 미군도 많았고. 군인들. 여기 초가집에도 방이 없어서 방을 못 얻었어. 근데 지금은 뭐 텅텅 비었지 동네가. 군인들이 나와서 살림하고. 장가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와서 살림을 하니까. 가족들이 있잖아. 가족들이 나오고 또 사병들이. 사병들도 대식구들도 나오고. 그 전에는 진짜 사람이 많이 북적북적 했어. 근데 군인들 부대들도 다 절로 나가고. 가족들이 나가고 하니까 여기가 없지. 학생도 없잖아.

여기는 옛날에. 우리가 떡 방앗간 할 때. 군인들이 떡 하러 오잖아? 그 트럭 있지. 큰 트럭. 그걸로 쌀 하나를 착-심고 나와. 그 떡을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해? 그 때는 돈으로 안 받고. 쌀로 줘 군인 쌀로. 예를 들어 쌀을 열가마를 갖고 왔으면 내가 떡 얼마다 하면. 쌀을 내가 세 말을 뜨면 일곱 말을 떡을 해주는거야. 군인들이 떡을 옛날에 잘 먹었는데 이제는 떡을 안 해가. 그 때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인심도 좋고. 근데 이제는...미군들은 떡 안먹지. 개들은 빵 먹지. 빵 파는 데가 어디있어? 다 부대에서 나오지.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거지. 영어는 무슨 영어. 미군을 상대를 못 했지. 그 때는 애들 일거 아냐. 미군이 여기 수복했을 당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12살 13살이야. 그러니까 미군하고 영어는 안 돼.

내가 나가서 뭐 고쳐주고 오면, 그 집에서 버리는게 있어. 이렇게 모아놔다가 고물로 파는거야. 고물로 팔면 얼마 돈이 돼. 한 삼십만원. 한 이십만원. 한참 모아야 돼. 몇 년 모아놔야지. 남들이 버리는 거. 옛날에는 부대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근래에도 나오긴 하는데 별로 없어. 옛날엔 전업으로 많이 했지요. 포 쏘고 빵빵 떨어지면 주워서. 주워서 팔아먹고. 다친 사람도 있고, 여기 찢린 사람도 있고, 눈 먼 사람도 있고 그래요. 포를 자르다가 죽기도 하고. 그때가...칠십...칠십년대 중반까지. 60,70..80년대 초까지도 아마 그럴걸. 그랬어요. 여기 사격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포를 이렇게. 야포라 그러지. 광광 쏘는거. 105미리. 150미리는 저기로 쏘는게 150미리고. 그건 요만하잖아. 지름이 150미리니까, 105미리면 요정도 되고. 여기 넘어서 저리 쏘면 건너서 타게트(타겟) 있어. 탄착점이라고. 포알 떨어지는. 탄착점. 저 너머 산에서 이쪽으로. 마을로 떨어지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 중간에 빵! 할 때가 있었어. 중간에 터질 때가. 군부대 고평격단이라고 해가지고. 땅에 가기전에. 살상용이지. 빵 터지면 이 근방에 사람들이 다 죽는거야. 공중에서 빵 터지니까. 그게 가다가. 어유,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겁이 나서 가. 무서워서.

집사람이 아파서
We'll all be planning that route
이리로 왔어
Were gonna take real 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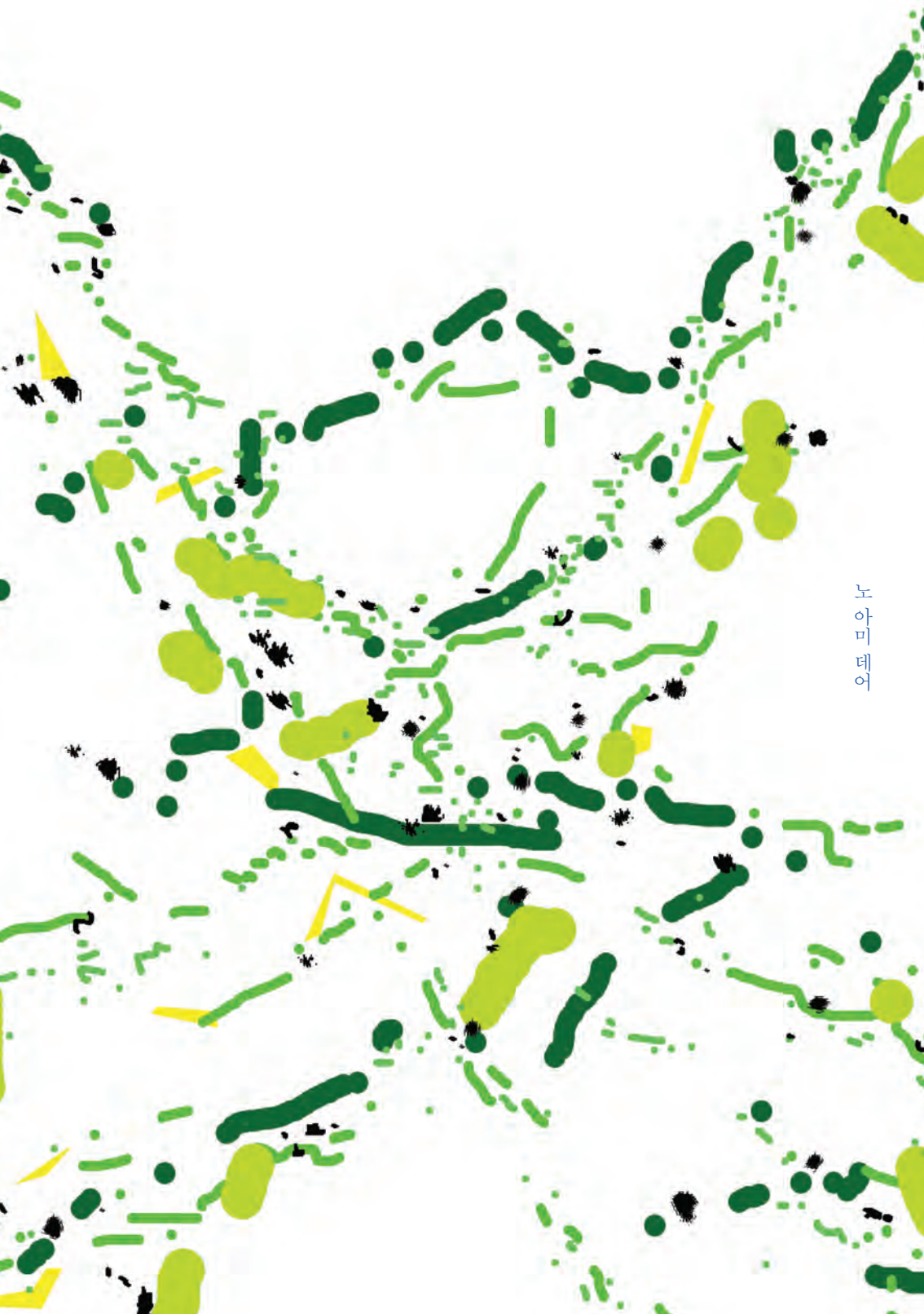
서울 여기저기에 살았지
Were waxing down our surfboards
내가 국정원 감사실에서도 일했어
We can't wait for June

집사람이 아프니까
We'll all be gone for the summer
내가 물봐줘야 해서
Were on safari to stay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니까
Tell the teacher were surfin'
Surfin' U. S. A.

Everybody's gone surfin'
시골도 좋아 공기도 좋고
Surfin' U.S.A.

Everybody's gone surfin'
와보니까 좋아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고
Surfin' U.S.A





여기

봄에는

튤립도 피는 거 아세요?

장미가 봄부터 가을까지

호드러지게 피요

적어는 멘드라미

그건 가을에

호드러지게 핀다는 게 그런말이냐

역전앞에는 코스무스

지나고나면 금잔화인가

골드메리로 알고 있는데

팬아꽃

새랭이꽃

분홍빛 가슴이 아련

복숭아꽃 피는 뜰에



여기

물에는

옛날에 저 뒷 산이 골짜기마다

립도 피는 일세요?

여기가 전쟁터야

장미가 봄부터 가을까지

무덤아지

호드러지게 피요

하루는 이 쪽

적어근 멘드라미

그건 가을에

하루는 저 쪽 그랬나구

적. 1앞에는 코스모스

호드러지게 핀다는 게 그즈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서 허허벌판이되어

노아미 데

세나고나면 극한복합기

골드메리코

있긴 뭐가 있었겠어?

팬아꽃

새랭아꽃

그 난리통에

분홍빛 가슴이 아련

복숭아꽃 피는 물에

시체들을 다 어떻게 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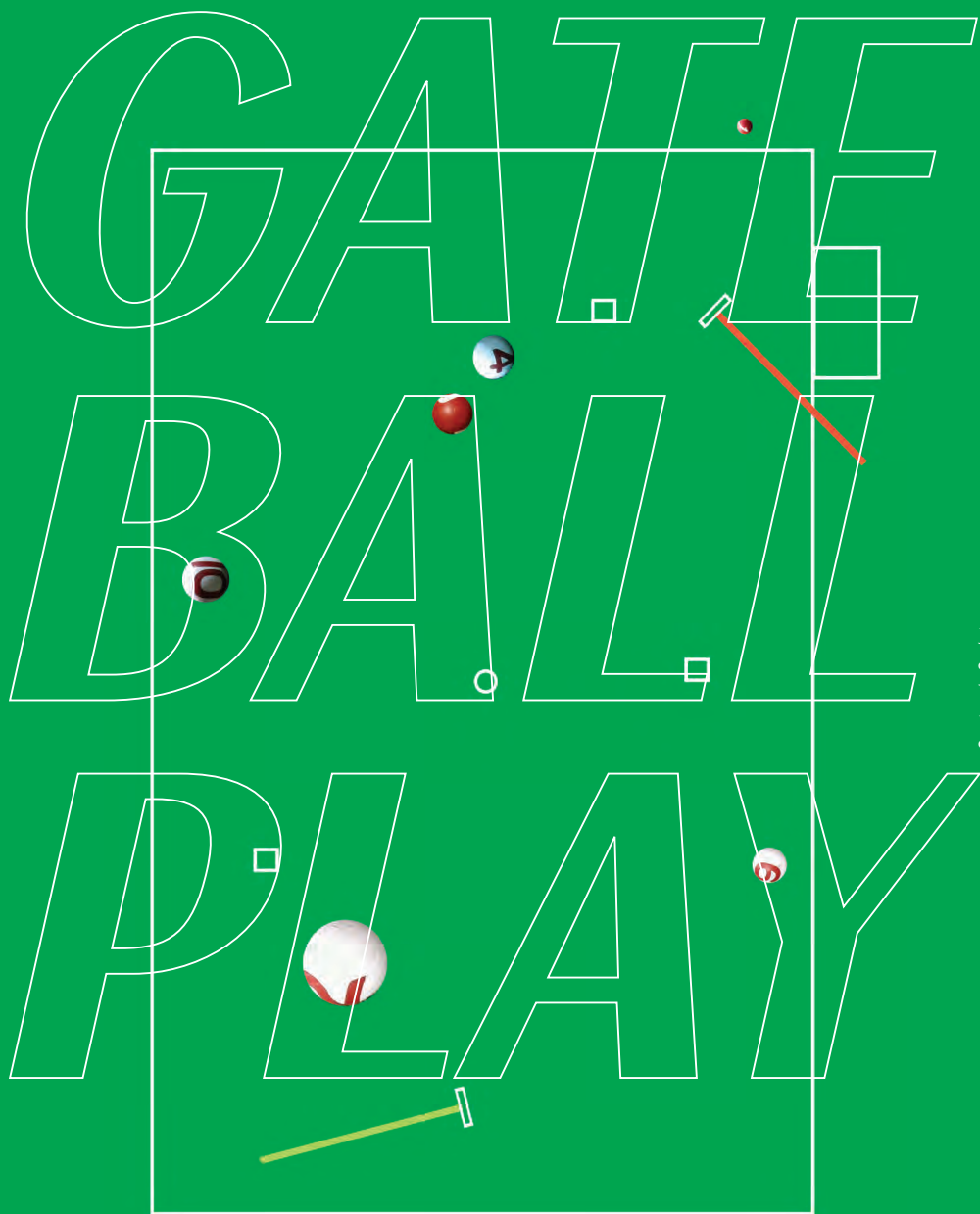
자. 다시 한 번. 빨간공은 1,3,5,7,9
짝수는 하얀공.

이게 하얀 선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서로 통과 못하게 아웃을 시키는거야. 이렇게 와서 맞추면. 이렇게 쳐내는거야. 아웃볼은 여기 이렇게 있고. 직접 치지못해. 이렇게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에 맞추던지 통과를 하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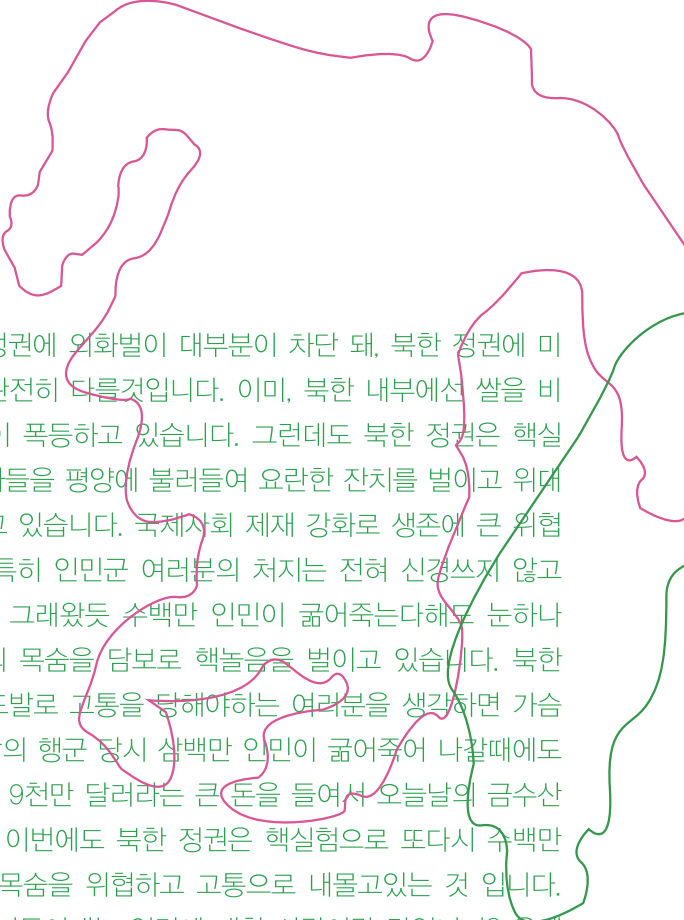
이 경계선으로 같은 편은 나가게 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공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동안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돼. 그렇지. 빨간 볼이 저기 있으면 맞춰서. 아웃시키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1점. 가운데 깃발있지? 거기까지 가면 2점.

GATE BALL PLAY



노아미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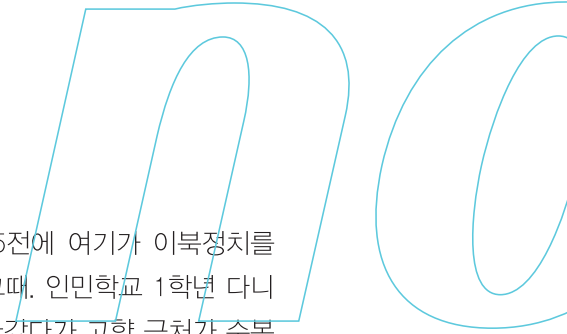


이번 유엔제재로 북한 정권에 외화벌이 대부분이 차단 돼,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것입니다. 이미, 북한 내부에선 쌀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핵실험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평양에 불러들여 요란한 잔치를 벌이고 위대한 승리라며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된 북한 주민. 특히 인민군 여러분의 처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말이죠. 북한 정권은 늘 그래왔듯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는다해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핵놀음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무모한 핵실험 도발로 고통을 당해야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삼백만 인민이 굶어죽어 나갈때에도 인민은 개의치 않고 8억 9천만 달러라는 큰 돈을 들여서 오늘날의 금수산 태양궁전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북한 정권은 핵실험으로 또다시 수백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에 목숨을 위협하고 고통으로 내몰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까? 은혜로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거짓말인지, 인민군 여러분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강한 규율집단인 군대에 10년씩이나 붙잡아두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영양실조에 허덕이게 하고, 여성군인은 군관의 성노리개로 전락시켰으니 이 죄만 해도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말로는 천만군민의 단결을 떠들고 있지만, 오늘날 인민군대는 인민의 식량과 재산을 도둑질해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비적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 정권에 있어 인민군 여러분은 언제든지 내다버릴 수 있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에반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나 국군장병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진심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우합니다. 북한에서처럼 인간 중심의 사회라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로 인간 존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군 지휘관 중 한명이 병사에게 군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평백성이 된 말단병사든 모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돈 많은 부자라 할 지라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게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큰 곤욕을 치릅니다. 북한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것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얘기만 듣고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유의 소리 방송 등 자유세계의 여러 소식을 듣다보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인간중심의 나라가 어느 곳인지도 깨닫게 될테고요. 북한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한 핏줄, 한 민족으로 태어난 삶이 이렇듯 달라진 이유는 하납니다. 군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한 쪽은 인간다운 삶을, 다른 한쪽은 고대 에집트 시절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할 권리,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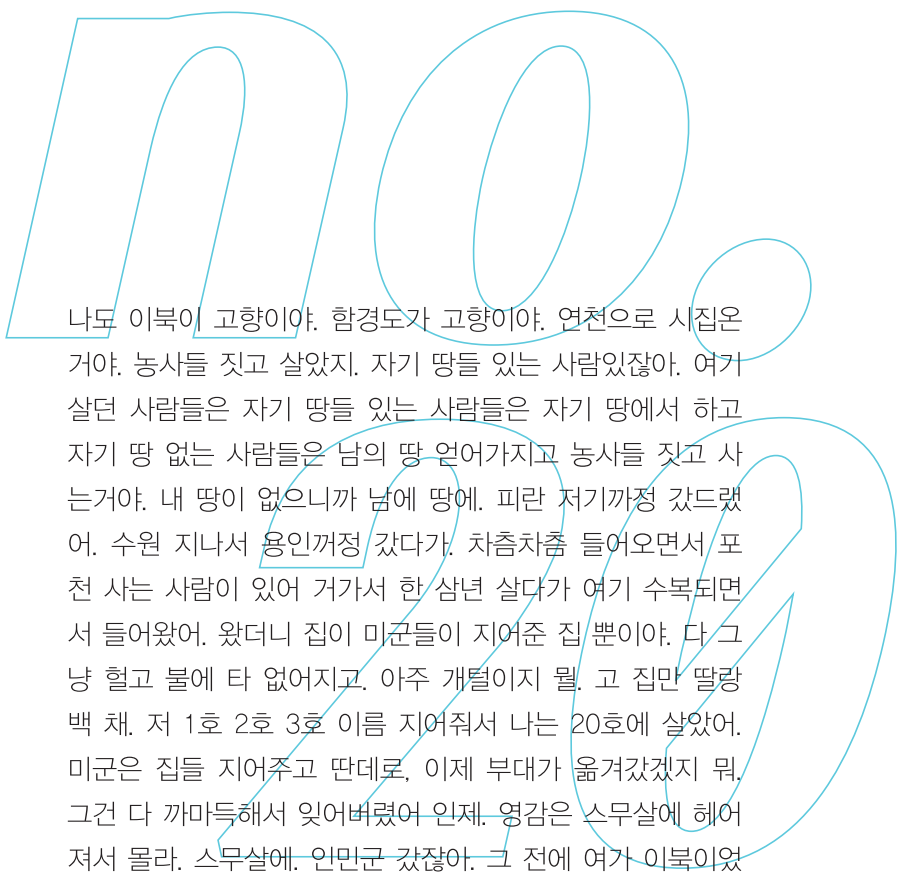


전쟁 때, 저 포로다가 다 폭격해가지고, 불 다 태워버렸지. 중공군놈들이 여기 많으니까. 인민군도 많았고. 그러니까는 뺏으려고 서로, 후퇴하고 막 그르지. 우리는 이북으로 군인들 인민군들이 도망가면서 인제 빨리 가라고 이북으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안가고 밍긔밋 하다가 미군이 땡크. 땡크 있잖아. 땡크를 몰고 와가지고 남한으로 빨리 가라고. 아, 처음에는 인민군이 북으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군이 남으로 가라 그러고, 안 간 사람은 미군이 데리고 가고, 여긴 이북이야. 이북으로 간 사람이 많지. 여기가 이북인데. 이북정치 받았어. 자기네들이 피란가면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지. 근데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어냈지. 그래서 피란가고 그랬어. 여긴 다 이북이야. 한탄강 다리라고 있지. 거가 남한하고 경계야 원래는. 뺏은거지. 원래 더 뺏어야 하는데. 그 때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이 쳐부쉬라 했을 때 그냥 부셨어야 하는데 못하게 했어. 그 때 부셨으면 이북이란 나라는 없어. 그 까짓 놈의 새끼들 상대도 안 돼. 안되는데 저 문대통령이 지금. 북한군이야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 그 정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아주 인민군이라면 이를 갈아. 알았어? 근데 문재인이는 그것도 모르고 핵을 쓰고 지랄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대. 그니까 트럼프가 화를 냈어. 문재인이한테 요놈. 꿈쩍 못해 문재인이는. 북한군 봤지. 같이 있었지. 같이 월하긴 월해. 한 동네에 살았으니. 지금 우리가 국군하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 땐 인민군이 있었지. 지금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똑같지. 우리 학교도 6.25때 전쟁 포격사격하고 그러잖아. 학교 다닐 때 산에 가 숨었어. 산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



여기? 여기가 북한이야. 6.25전에 여기가 이북정치를 받았어. 인민학교라 그랬지 그때. 인민학교 1학년 다니다가. 내 고향은 중면. 피란 나갔다가 고향 근처가 수복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 근처니까. 거기가 지금 수복이 안돼있어. 비무장지대라. 부친께서 고향 근방이 수복된다고 하니까 신청을해서. 접수가 된 사람만 여기서 산거야. 그래서 들어왔지. 들어올 때 제비뽑기를 했어요. 100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군이 수복을 시켜가지고, 미군들이 지금 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텐트를 쳐줬어. 텐트 안에 보통 다섯가구, 여섯가구를 몰아 넣어서 산거야. 거기 텐트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미군들이 여기에 100호를 지어준거야. 수복시키고 미군이 100호를 어떻게 다 올려. 완성을 못시키고, 제비뽑기 잘 한 사람은 거의 완성된 집을 들어가고, 잘못 뽑으면 뼈대만 올라간 집 들어간거지. 우리집은 3호니까 거의 다 올린집에 들어간거고. 허허.

할 말은 아닌데,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은 이북이 어떤
지를 모른다고. 우리 마음은 무척 답답하고 속이 답답해.
생각을 해봐. 이북정치를 전혀 모르잖아. 이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는 지 전혀 모르잖아. 내가 어려
서 확실한 건 모르는데, 마을별로 저녁마다 반상회를 했
어. 내가 인민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6.25가 났는데 저녁
마다 동네사람들이 반상회를 했어. 며칠에 한번씩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고. 안나가면 탄광예를 보내. 탄광같은 데,
비료공장 같은 데. 지금도 말 안들면 교화소 보내고, 반동
분자. 반성이 되면 어느정도 공장으로 또 보내고. 우리는
다 그거 겪었기 때문에.



나도 이북이 고향이야. 함경도가 고향이야. 연천으로 시집온 거야. 농사들 짓고 살았지. 자기 땅들 있는 사람있잖아.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자기 땅들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하고 자기 땅 없는 사람들은 남의 땅 얻어가지고 농사들 짓고 사는거야. 내 땅이 없으니까 남에 땅에. 피란 저기까정 갔드랬어. 수원 지나서 용인꺼정 갔다가. 차츰차츰 들어오면서 포천 사는 사람이 있어 거가서 한 삼년 살다가 여기 수복되면서 들어왔어. 왔더니 집이 미군들이 지어준 집 뿐이야. 다 그냥 헐고 불에 타 없어지고. 아주 개털이지 뭘. 고 집만 딸랑 백 채. 저 1호 2호 3호 이름 지어줘서 나는 20호에 살았어. 미군은 집들 지어주고 판데로, 이제 부대가 옮겨갔겠지 뭐. 그건 다 까마득해서 잊어버렸어 인제. 영감은 스무살에 헤어져서 몰라. 스무살에. 인민군 갔잖아. 그 전에 여가 이북이었어. 연천이 이북이었잖아. 이제 군대 뺐으면 가야지 안 가는 수가 있어? 군인으로 아주 간거야. 인민군으로. 딸하나 있는 거 뱃속에서 4개월 됐는데 갔어. 결혼해서 나 4개월 살았어. 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듬해 4월달에 갔으니까. 찾아 보긴 뭘 찾아봐 죽었겠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 심경은 말도 못하지. 잊어버렸어.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 얘기 좀 해줘요? 근데? 내가 여기 태생이야. 여기서 6.25전에. 내가 11살 때 6.25가 났으니까. 4학년 여름방학에 6.25가 났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인민학교 1학년은 대광리에서 입학해서 2학년 정도 땡기다가,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6.25가 났어. 6.25 나고 인민군들이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 여기, 여기. 요만큼 딱. 지도 표시를 해놓고, 군청 앞에. 그때는 학교를 얼루 다니려면 삼곶리 인민학교를 다녔어. 한 십리 돼. 그래 땡겼는데 6.25나기 한달이나 그 전 쯤해서. 두달은 안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어스름하면 기차에다 탱크를 싣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전국가면 흠프레스 댈는 게 있어요. 저쪽으로. 거기서 차를 대놓고, 기차를 대 놓고 내리는거야. 그래서 개들이 만든거야. 그게. 땡크 내릴려고. 연천도 그게 있어. 연천은 양쪽으로 있어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게. 역전에 가면 기차가 가면, 양쪽으로 딱 잘려서 높으게 있어. 사람이 올라가지 못 할 정도로. 높으게 돼 있다고. 기차에서 땅바닥으로 바로 땡크가 나가게 높여서 만들어 놓은거야. 이북에 인민군들이 와서 해놓으거야. 그렇게 갔다가 숨겨놔다가 6.25가 난거지. 나는 그걸 봤어. 저녁 때면 땡크 싣고 가는거야. 남침할거라고 자기네가 여기까지 갔다갔다. 이렇게. 그거까지 봤어. 기관총까지 다 쏘고,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상교육 시키는거야. 내가 그걸 본거야. 어렸을 때 봤는데, 2차대전 때 거기 사수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남쪽 애들을 구해줘야 한다. 지금 남쪽에 인민들은 학생들은 애들은 다 벌거벗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죽는 애들이 많다. 너희들이 구해줘야 한다 그런걸 심어줘. 그 때 당시에는 실제로 남쪽은 혼란시대였어. 안정이 안 됐어. 체제가 딱 잡히고 살기좋은, 아주 진짜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 왜냐면 노동당 가입하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 살판났지. 뺏어서 뭐 하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졌어. 그리고 애들 다 깨끗해. 진짜 이거였어. 그 시대에. 근데 그 때는. 전두환이 나오잖아. 영화. 연속극. 야인시대. 그게 실제로 그런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야. 그렇지? 그게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게 연속적이었거든? 전두환이 국회에 들어가서 똥바가지 퍼부은거 아냐. 실제로. 그만큼 사회가 혼탁했던 시대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북은 진짜. 여기는 6.25전쟁 나고서도 원양선 타고 땡기는 사람 있었어.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기브미 쪼꼬렛이고, 이북에 가면 깨끗하고, 애들 하나 없대. 항만에 들어가면 그렇게 깨끗하고 동네가 살기 좋았대.

‘어떤 논이 우리 집에도 차례 오라는고……. 올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자!’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앞일을 빼돌어보았다.

동운이는 지계를 벗어놓고 낫을 빼 들었다. 황주사의 이 산도 국유로 몰수되었다 한다. 따라서 이 산은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인민의 재산이요, 동유림(洞有林)과 마찬가지로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래와 같은 사유관념을 버리고, 일초일목(一草一木)이라도 소중히 알아서, 이 국가의 재산-인민의 재산-인 산림을 애호(愛護)하여야 된다는 말을 들은 동운이는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생나무는 찍지 않고 고자백이와 삭정이만 따고 있었다.

그동안에 언년이는 약삭빠르게 더덕을 캐었다.

해가 한낮이 기울어서 그들은 집으로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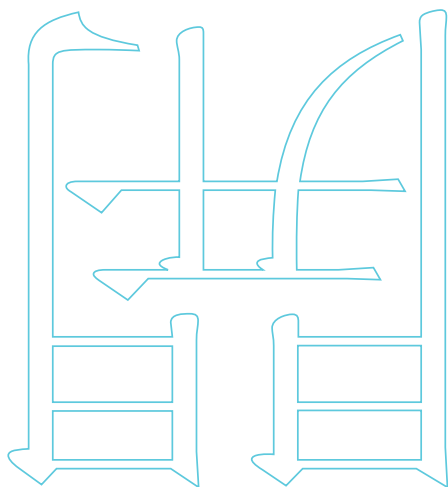
동운이는 등걸나무를 한 짐 잔뜩 걸머지고, 언년이는 더덕을 한 바구니 싣하게 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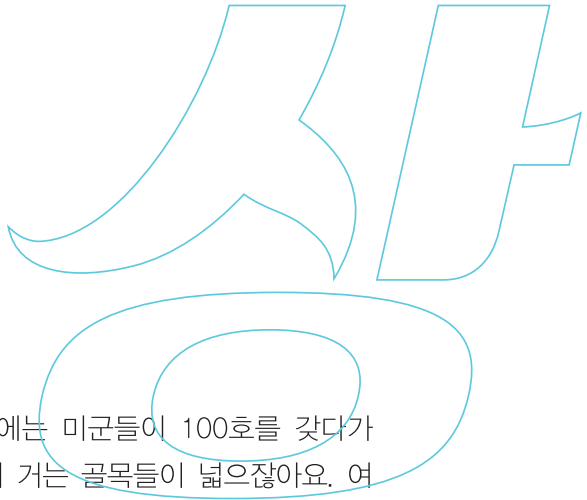
그들이 돌아보니 동수는 벌써 술을 한 병 사다 놓고, 어머니는 저녁먹이 콩꾸리를 갈고 있다.

위원회를 여태 하는지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황주사는 간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남으로 솔가도주(率家逃走)를 했다 한다. 그 소식은 술을 받으러 갔던 동수가 듣고 와서 전하였다. ‘그럼 아마 그 영감태기가 지전(地錢) 옷을 입구 갖겠지 이 남에 가면 무슨 별수가 있겠다구.’

이기영 ‘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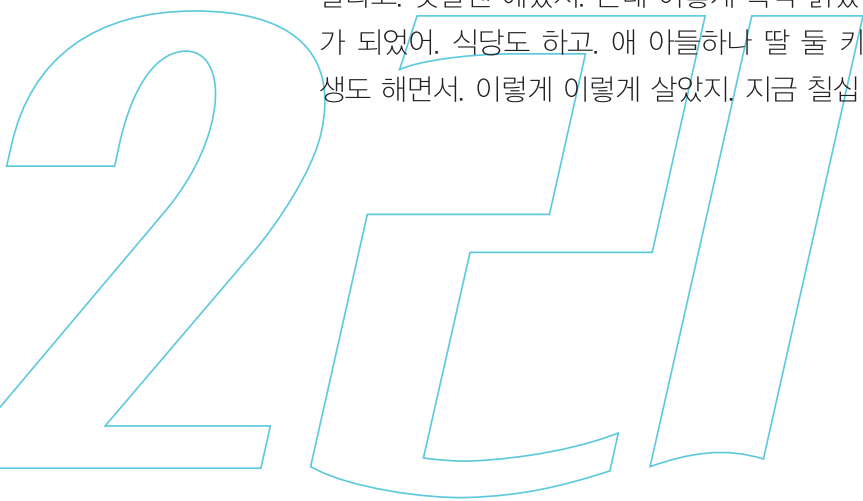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급하게 챙기신다는 게 땅문서. 혼란중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 그게 족보랑 북에 있는 땅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내려온거야. 다 버리고 나오는 마당에 땅. 땅이었던거야. 그게 지금 우리 고모가...가지고 있다가 남한에서 사는게 그렇다보니 잃어버리고...참. 그걸 왜 잃어버렸는지. 그 중요한 걸. 그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아니지 마는. 또 누가 알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이 이전에 함경도에서는 땅도 있고. 왜 잘 산다는 그런 집이었던거야. 그게 잃어버리고 안타깝지. 그런걸. 그냥 종이 찌가리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잖아.





처음에 수복될 때, 저쪽에는 미군들이 100호를 갖다가 똑같이 지어줬지. 그래서 거는 골목들이 넓으잖아요. 여기는 슬슬해서 옛날에는 버스가 여러대 댕겼어요. 여기 뒤에. 버스가 여기에 서고, 기차길 건너서 저기에 마을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 100호가 생긴 바람에 이렇게 버스가 오고, 그래서 여기는 전부 장사집이었다고. 양쪽으로 장사집을 길게. 그래서 요 길이 다 방거리야. 전부 장사집이에요. 전부 술집. 무법천지 아니니까. 뭐 그냥. 해가 질 정도 되면은요. 양쪽으로 아가씨가 짜악. 의자 놓고 나와가 있는거야. 전부 술집이니까. 전부 군인상대지. 근데 지금은 군대가 안나오니깐 전부 문 닫고 떠나버렸지. 전부 빈집이에요. 군부대가 있어도 군인들 나눌수가 있나. 그 전 같으면 막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은 구경도 못하지요. 요즘에는 이북놈들이 저러고 있는데 내보낼 리가 있나. 요즘은 그냥, 노는게 취미야. 친구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어. 놀 데가 없어.

저 54년 살았어요. 이 동네에서. 장사 많이했지. 식당을 많이 했어. 돼지식당. 그때는 이 집도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 수해나고 나서 번듯하게 앉은 거예요. 초가집이고, 형편 없었지. 저 집도 막 옛날에 지어서 몇 개 지어서 초가집으로 지어서. 우리 고향이 전라도인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여기를. 열 살 안 먹어가지고 따라왔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어렸을 때. 전라남도에서. 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저씨 만나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딸 달라고. 내가 머리 땃고 어렸을때 나 달라고. 옛날엔 예뻐지. 근데 이렇게 폭삭 늙었어. 할머니가 되었어. 식당도 하고. 애 아들하나 딸 둘 키우면서 고생도 해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지. 지금 칠십 둘이야.



어머님 아버지
간섭되면 소
무게 되었습니까
장장을 하고 드
공인차가 드
수원장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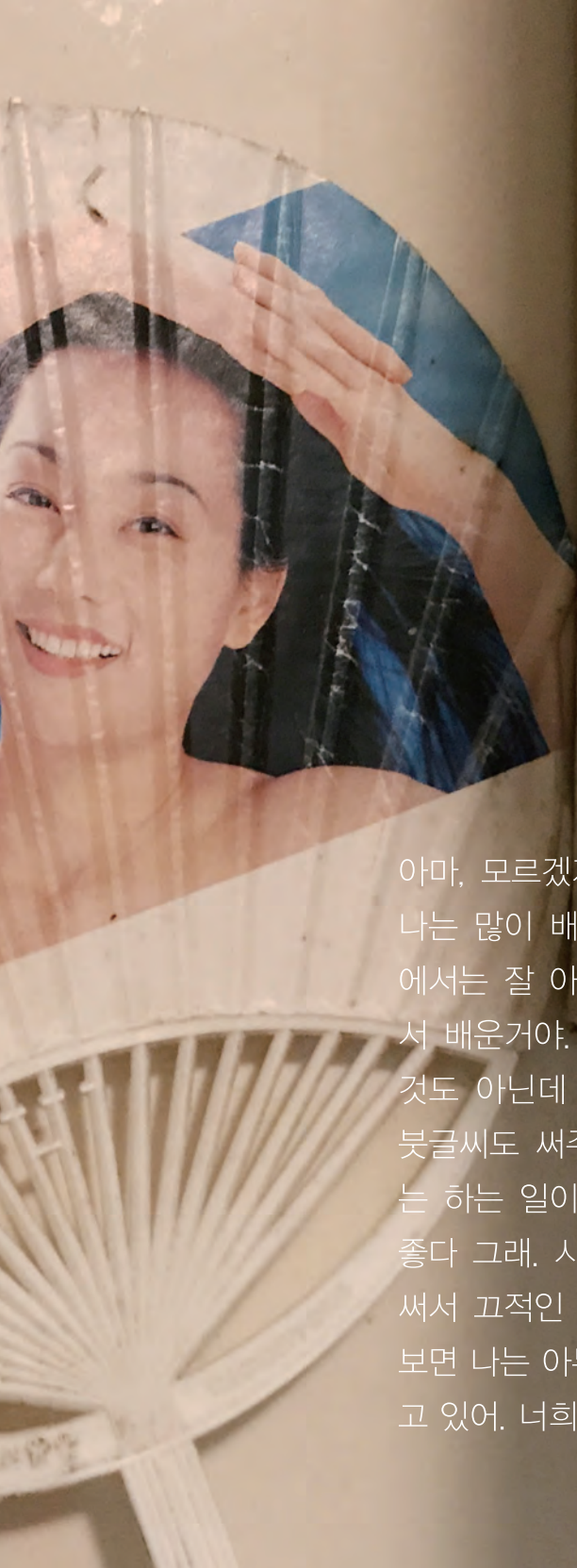
어머님, 아버님 따뜻한 사랑으로 매 한 대 안 맞고 자랐습니다. 25살 되던 5월 10일날 연천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중매는 형부께서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신부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택시를 타고 연천까지 달려오는 길에 군인차가 앞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망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월달이기에 밖은 따스하였지만 아지랑이가 아롱거리는 봄날. 후방에서 그렇게 많은 군인을 보지 못하였는데, 전방이기에 그런지 앞뒤로 군인차와 군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오게 되었다. 그 소리에 나는 마음이 황홀했다. 집도 들르지 않고 상리교회로 바로 갔다. 대기실은 조그마한 방이었다. 지금 구성전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연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삼일날 친정을 못가고 와초리 논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보며 시집을 살게 되었지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물건을 해 오시고, 시누님은 편물을 짜시며 가게를 보셨습니다. 그 해 가을이 되어 점심밥을 해가지고 논에를 갔는데, 길옆에 무밭이 있었습니다. 무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음직도 않은 것을 하나 뽑았는데,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무를 왜 뽑았느냐며 얼마나 야단을 하셨는지 너무 무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과실을 따먹은 하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않은 무를 왜 뽑았는지, 왜 그 일이 그리 잊어버려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 때 임신이었기에 그 무가 먹고싶었나 봐요.



종근당

잡 들어요!

리통에
잡



아마,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 붓글씨도 혼자서 배운거야. 혼자서 쓱쓱 써내려간 걸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들 대단하다고 그래. 어디가서 붓글씨도 써주고 하는데, 대단하지도 않아. 나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이 잘했다, 좋다 그래. 시집도 몇권을 냈지만, 그냥 종이에 써서 끄적인 걸 시라고 해서 올려지고. 가만히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속고 있어. 너희들도 속지마.

술 빛는 풍경

이미지보다 텍스트로 풀어보고 싶다는 조금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자신들의 삶의 한 부분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분들에 관한 자료로, 덜 선명하고 덜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주의를, 정성을 요하는 텍스트가 적합할 것 같아서였다. 상대적으로 신망리에서 보낸 시간이 짧기에 다른 작가들이 인터뷰하신 녹취 내용과 들려주신 내용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는데, 읽다 보니 거의 모든 이야기에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녹취록들에서 음식, 잔치, 농사일 등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골라내어 모두 모아본 것이 마지막 장 "먹고, 사는, 이야기 들리는 풍경" 이다.

이아람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해야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술을 빙는 날, 그래서 텅으로 흥이 날것도 같은 날.

사람이 들어가도 두셋은 죽히 들어갈 듯 커다란 냉동고 위에는 비닐 자루가
 털썩 놓여 있다. 하얗게 불린 쌀이 비쳐 보이는 비닐 자루에는 냉동실에서 꺼
 낸 듯 결로가 맺혀 있다. 구멍이 송송 뚫린 한 아름 양은 시루와 손잡이가 거
 의 떨어져나간 가마솥 모양의 낡은 냄비. 비취색 플라스틱 대야에 걸쳐져 있는
 색이 바랜 다홍색 플라스틱 바가지. 찢을 낡 시루에 쌀을 고루 담고, 물로 행군
 후, 가스 부뚜막에 술을 걸어 고두밥을 찐다.

햇쌀밥, 은은하고 구수한 쌀 고유의 냄새가 살아있던, 고봉밥
 참외 향이 물씬 나는 오이로 만든 오이무침, 이름난 연천오이
 깻잎의 색, 초록빛이 남아있는 깻잎짬아찌, 콧 씹히는 부추향, 빨간색과 초록
 색의 고추에서 느껴지는 멸치향, 양파, 마늘, 금새 해서 금새 먹는 맛
 열무김치
 살짝 뜬내가 나던 삼삼한 김치
 손두부를 부쳐 양념에 재운 두부조림

지퍼백에 든 누룩 원반과 비닐봉지에 든 엇기름,
 오투기 드라이이스트,
 하늘색 어린이용 알파벳 돗자리에 앉아, 가벼운 알루미늄 절구에 누룩 원반을
 조금씩 부수어 넣고 쿵 쿵 찜는다. 방구들이 꺼지니까, 현관 배란다 돗자리가
 제격이다. 천천히, 구름이 피어오르는 속도로 누룩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예끼, 하고 누룩 조각들이 절구에서 튀어나온다. 누룩의
 냄새는 누룩하다. 잘게 부수어진 누룩 가루는 스텡 바가지에 붓는다. 이걸 언
 제 다, 라고 언제 했었나 싶게 금새 다 빵았다. 적절한 힘, 적절한 속도, 적절한
 각도, 적절한 양에 대해 대충 감이 올 때 쯤.

밥을 먹고, 절구를 놀리는 사이, 고두밥이 된다.

술항아리를 깨끗이 씻고, 술잎을 따온다.

여기 저기 찌그러진 낡은 알루미늄 대야에 다 된 고두밥을 퍼 넣고, 한 김 식으

면 분홍색 고무장갑이 휘젓는다. 살아 있는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 일을 하려면, 미지근해 져야 한다.

쌀 알갱이 사이사이 술잎과 누룩과 이스트가 고루 고루 섞이도록, 분홍색 고무장갑과 맨손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비빈다.

아까 씻어서 방에 모셔 놓았던 술독에 넣고, 물을 밥 할 때처럼 손을 얹어 손목뼈 위까지 오도록 붓고, 이불로 따뜻하게 감싼다.

빨간 고무다라이를 머리에 쓴, 빗바렌 그러나 한창 때의 옥색 이화 태극표 정미기를 지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율무밭을 지나

썩으면, 먼 데서 들리는 종소리처럼 땅콩과 깨 향이, 멀리서 나는 율무밭을 지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철조망, 익숙한 가시형 철조망이 아닌 신식 면도날형 철조망을 지나

철조망 뒤 웅크린 초소, 뭐래냐면, 불응시발포, 정지, 라이트꺼, 시동꺼, 운전자 하차

걸음이 멈추어지는 지뢰 모형, 발견하면 신고바라는 폭발물 모형, 빨간 글씨의 폭 발 물

시어머니의 발목을, 목숨을.

조금 더 오래 되어 보이는 위험, 목함지뢰

유유히 지나

오이밭, 인심 좋은 오이밭, 인삼꽃 옆 유명한 연천오이밭

금방 튀긴 강냉이에서 나는 향긋한 옥수수냄새가 얼핏 나는 붉은 땅콩을 안주로 차게 식혀 두었던 색색 플라스틱 컵에 맥주를 따라 마시는 오이밭을 지나
얼얼한 돈사를 지나

들국화를 한줌 꺾어 와 집에서 이불 두르고 있는, 이미 향이 그득한 막걸리 항아리에 쿡 쫓는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해야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막걸리가 익는 시간,

가까운 이가 사라진 얼얼함으로 땅으로 꺼져버리거나 먼지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이 막걸리가 다 익기를, 그래서

물려와 또 막걸리를 다 먹기를, 그래서

한 대 세계 얻어맞고 눈앞이 하얗게 까막막한 동안을

같이 기다려주는 시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술을 담궜어.
사람이 죽으면, 잔치를 해야 하고, 잔치를 하려면, 못해도 두부와 김치와 막걸리는 있어야지.
막걸리 익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사람 보내는 준비에 곁을 지켜 줄 사람들을 위한 상을 차리기 위한 시간.
상을, 차리기 위한 시간.
이 술이 다 익으면,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면, 갈 사람은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가겠지, 가겠지.
아직은, 술이 채 익지 않았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술을 빚고, 두부를 만들 데다.
잔치를 하려면, 막걸리, 두부, 김치만 있으면 되는 거란다.

어느 집 며느리가 묵묵히 만들었다는,
틈만 나면 쌀로 백설기를 해서 말려 가루로 빵고, 또 해서 빵고,
그렇게 미숫가루처럼, 왜냐고 물어도 답도 없이 마냥 만들었다는,
그러던 어느 날 다짜고짜 식구들에게 그 미숫가루를 어깨에 지워 집 주위를 맴돌게 했다는,
그러다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지붕까지,
거짓말처럼 지붕까지 눈이 왔다는,
그리고 식구들은 땀 땀 돌다 어깨에 지고 있던 미숫가루를 먹으며 거짓말처럼 눈 녹을 때 까지 미숫가루를 먹었다는.

반짝 반짝 연천쌀로, 백설기도 하고, 미숫가루도, 고봉밥도, 고두밥도, 막걸리도 한다.
난리가 나면 역시 미숫가루겠지, 하지만 지금은 잔치를 한다.
두부와, 김치와, 콩 허머스로, 오이로 만든 카나페들, 그리고 갓 걸른 막걸리를 차려 놓고
지금, 잔치를 한다.

사물 풍경

빛바랜 선홍색 바가지
비취색 대야
통굽 높은 폭신한 슬리퍼
바가지 색보다 조금 더 엷은 불그스레한 타일 바닥

양은 시루
 푸르스름한 비닐봉지
 두툼한 금속 가마솥
 얇은 흰 천자
 벽돌색 고무다라이
 파란 목욕탕 의자
 양은 절구
 알파벳 공부용 하늘색 돗자리
 검은 비닐봉지
 양은 절구에 누룩을 뺏으면 나는 연기
 은색 누비 요
 스텡 바가지
 가스레인지
 나무주걱으로 저으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두밥
 웅기 술 향아리를 씻는 하늘색 합성수지 호스에서 나오는 물
 나무 마룻장 무늬의 리놀륨 바닥
 분홍색 고무장갑
 오래된 듯 여기저기 찌그러진 양은 대야
 누린 장판지 색 리놀륨 아랫목에 놓인 술 향아리
 대야에서 고두밥과 누룩 비빈 것을 향아리에 퍼 담는 스텡 바가지
 다홍색 소쿠리 안에 까는 다홍색 치마 안감
 파란 콩 분쇄 기계
 돛 대야
 파란색 호스
 녹색 양파망
 간수가 담겨 두부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 큰 플라스틱 반투명 타원형 대야
 핑크색 고무 슬리퍼
 체를 받치고 있는 각목을 교차시켜 만든 지게모양 도구
 술 걸러질 때 나는 낙숫물 소리
 적외선 특수유리 장독 뚜껑
 하늘색 슬레이트 담장
 할머니가 노처럼 저으시는 나무주걱

잔칫날, 두부 쪄는 풍경

하루 전날 미리 담가 불려 놓은 콩을 간다.
 하염없이 땀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용감하게 드르륵 뿜뿜 기계로 간다.

가정용 블렌더는 소꿉장난이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육중하고도 듬직하니 하늘을 보고 입을 벌린 분쇄기에 불린 콩을 붓는다. 따뜻한 물을 섞어 가며, 속이 다 시원하게, 순식간에 다 갈려 나온다. 꾸역꾸역 갈린 콩이 다 깨워져 나오면, 치맛자락이었다는 투명하다시피한 붉은색 천에 걸려 콩물을 뺀다. 큰 대야 위에 각목을 짜서 만든 받침대를 걸쳐 놓고 그 위에 빨간 소쿠리를 얹고 천을 간다. 효자노릇 톡톡히 하는 색이 바랜 바가지로 콩 갈린 것을 퍼 담는다. 최야, 하고 콩물이 대야에 받히는 소리가 나고, 붉은 천을 주머니처럼 모아 쥐고 콩물을 짜낸다. 꼭 꼭 짜낸 주머니를 다시 따뜻한 물에 담고, 콩물을 더 빼낸다. 일손 거들러 오신 할머니가 연신 이렇게 하나까 편하네, 하신다. 갈아낸 콩을 끓여서 거르다 손이 데였었는데. 이렇게 수돗물 온수로 콩물을 바로 뽑으니 훨씬 편하다고. 그럼, 편하지, 하시는 순이할머니. 날콩 비린내가 물씬 거리는 뽀얀 콩국울, 바가지로 슬슬 퍼서 양은 가마솥에 붓는다. 드림통을 개조한 야외용 간이아궁이는 어느새 길이가 들쭉날쭉한 각목을 잔뜩 빼어물고 잔뜩 불이 붙었고, 가마솥은 그 위에 올라앉아 달아오르는 중이다. 나룻배에서 써도 될 법한 커다란 주걱이 슬슬 노를 젓는다. 오늘따라 바람이 세다. 여러 손이 번갈아가며, 오늘따라 유난히 널름대는 불길에 바짓가랑이 조심해가며, 솔바닥이 높지 않도록, 주걱을 놀린다. 아까운 콩물이 넘어버리지 않게 끓어오른다 싶으면 바가지로 조금씩 부어 숨을 죽이도록 콩물을 한 대야 남겨 놓았다. 계속 노를 젓는다.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가 간이아궁이를 용접도 해가며 꽤 꼼꼼하게도 만드셨다. 똑딱 만들어서 긴 세월 쓰다 보니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것 같은 물건들. 한참을 젓다 보니, 어느새 슬슬 두부 익는 냄새가 올라오고, 아가부터 기미를 보시던 할머니가, 됐다, 하신다. 다시 효자 바가지를 대령해서 큰 대야에 콩물을 옮겨 붓는다. 한김 식으면, 간수를 슬슬 넣는다. 대야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아주 천천히, 조금 넣고 젓고, 또 넣고 젓고를 반복한다. 이것도 감으로 넣으시는 거죠? 그럼, 감으로 넣지. 그 옆에 턱을 괴고 앉아, 뽀얀 콩물이 엉기는 순간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간수를 맛보느라, 옛날에 두부 만들던 이야기, 옛날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김치냉장고가 나오는 콩국수 이야기를 듣느라 낮이 나간 사이, 어느새 콩물은 두부와 투명한 물로 분리된다. 감탄에 감탄을 하며, 떠주시는 순두부를 후루룩 떠먹는다. 보를 깔고 아까 콩물을 빼낸 것처럼 두부를 걸러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야 위에 흰 천을 덮고 그 위로 고이는 물을 효자 바가지로 좀 퍼내신 다음, 큰 네모 플라스틱 통에 그 천을 깔고 순두부물을 슬슬 옮겨 담고, 천을 슬슬 들어가며 그 밑 물을 다시 빼낸다. 그래서 플라스틱 통 천안에는 점점 두부만 남게 된다. 계속 물속에 담긴 채로. 두부가 모두 플라스틱 통 안으로 들어가자, 천의 나머지 부분을 잡고, 이렇게 얇전하게 해, 하신다. 얇전하게 뭘 하라는 건지 머뭇거리자, 아니 얇전하게 하라는데 왜 안하고 있어, 하고 호통이 떨어진다. 여전히 뭘 하라는 건지 어리둥절하자, 이리줘봐, 하고 하시는데, 그제 서야 얇전하게 하다가 천으로 두부를 곱게 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바탕 웃는다.

부뚜막이 들리는 풍경

한번 반복해보세요. 제가요? 옛날에는, 찜통이 없으니까, 딱 이가 맞는 찜통이 없으니까, 밀떡을 해서, 가에를 막는 것 같아요, 김이 올라가게. 밀가루, 맞아, 우리 할머니 그렇게 하시드라고, 이가 딱 맞으라고. 항상 그래서 칼로 가르더라고요, 띄어 내야 되니까, 어릴 때, 할머니가. 아 그걸 보셨구나. 지금은 이거 식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저거 넣고 이제 비벼야 돼. 물을 붓고. 아, 그러고 며칠을 있으면, 5일 정도는 되어야 이게, 부글부글부글 끓으니까 삭아. 삭고 난 다음에는 걸러내야 되는 거죠 이제 찌꺼기와... 먹을 때는 체에다... 시방은 체가 없으니까 자루에다 넣고, 주물러서 빨아, 두부마냥. 옛날에는 찻다래에다 놓고... 여기 우리 다 있어. 찻다래도 체도. 거기다 걸러야 돼. 누룩이요? 그래서요? 그래서 조금 하는 거지 뭐. 히, 많이 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먹어야돼? 네 저희 동네 분들 다 모시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죠 뭐. 아니, 막걸리만 먹나 뭐. 이 정도 하면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한말, 한말이라 그러냐? 한말이면 얼마냐면, 10리터가 한말이야, 1리터가 1되니까, 10개 나온다고, 이만큼 하면 한말 나오는 거네요. 10리터. 쌀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한 5키로? 5키로는 더 들어갔어. 10키로 사온 건데 저기 남았걸랑? 쌀이 조금. 남았어요? 그럼 한 8키로 정도? 누룩은 얼마큼, 누룩은 어딴어요? 누룩 봤어? 봤나 못 봤지, 그래서 빵을 것도 안 빵았어. 잘하셨어요, 누룩 빵아야 되나봐요. 안 빵았다고. 누룩은 그럼 사온 것 그대로예요? 그대로지 그럼. 아 이걸 이제 빵아야 되는 거네요. 조금 있다 힘쓰는 것은 저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을 빵아야 되는데, 그냥 사진을 찍는 건지 안찍는 건지 몰라... 일단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를 시키시면 되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지시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엿기름, 이거 하나는 여기 좀 넣고, 이거 술이... 다 되면, 쌀 조금 남은 건, 또 죽 섞 붓는 게 있어, 그러면 술이 더 많아져... 그래서 6일날 온대는 걸 잘못했다 내가 그랬어. 10일경에 바쁘다 그랬지? 어저께 벼 베었거든. 타작했어. 벼타작. 논에서. 이렇게 다 베어서 타작하잖아. 봤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아까워? 그 어저께 오래니까 어저께 못 오구. 어저께 올 상황이 못 되어 가지구...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해볼까 그러고 쌀을 좀 남겼어. 아,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누룩은? 누룩 이걸 어뜨케 맨드냐구? 네 재료가 뭐예요? 밀! 밀이에요? 밀있지 밀, 보리, 밀, 그거를, 갈아, 갈아가지구, 물에다가 개가지구, 이런 틀 있거든? 틀에다 넣고 꼭꼭 밟아. 밟아서 더운 데다 놓구. 꼭꼭 밟으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불려서 가는 거예요? 아냐, 그냥 생으로 갈아서 물에다가, 떡 반죽 하듯,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데다 놓고서 밟아, 밟아서 보자기에 싸서, 저거마냥 보자기에 싸서 그러면 그게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 떠... 어머! 그래서 이게 노란 게, 술이 되는 거야. 그래요? 요거는 아니구요? 구수하지? 진짜 이거 코밑에 달아놓고 싶

네요. 빵 같지 않아? 이, 구수한 맛이 나지. 이것을 절구통에다 대구 빵아야돼. 옛날에는 이걸 직접 다 만드신거죠? 그럼, 직접 다 만들지. 며칠 정도 두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온도는요? 띄워서 말려, 저기 쭉 있지 쭉, 쭉을 베타다가, 이걸 깔고, 맨들어서 덮어놓으면, 이렇게 떠, 이걸 보리질금. 엿질금. 엿질금은 뭐지? 보리 싹을 띄워서 말리는거야. 아 그래요! 보리를 담가서, 물에 담가서, 저런 바구니에다 건져놔, 저런데 놔두면은, 그럼 뜨듯하면 싹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말리는거야, 단술하는거랑 같은 그거죠... 인제, 이거 하나는 여기 넣고 하고, 인제 술이 일찌감치 다 되믄, 저걸 죽을 쑤서 부으면 막걸리가 더 많아져, 밥을 더 해서... 좋네요,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약사는걸 얘기해야지... 술 만드는 약을, 이스트라는 약을...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이제 힘쓰는거 한다면, 방구들 꺼지니까 밖에나가서 해야돼. 아 방구들 꺼진다는게 그런 말이구나! 질금 있잖아 아까 질금... 이거 다 부어요? 엿질금입니다... 이게 한 봉지에 몇그람인지 재어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거 재면 돼... 이스트도 넣고... 술도 넣고... 이걸 다 넣어요? 반만... 몇그람이예요, 반이? 와, 냄새... 25g. 그리고 그다음에 술있... 술있을 따서 씻었습니다... 이건 그냥 다 넣는거예요? 물이 똑똑... 괜찮아... 술있을 왜 넣는거예요? 향내나라구. 이때, 잣 막걸리면 잣을 넣고... 요때... 향 내는 타이밍이 요때... 몇그람이예요? 65, 650... 저 이것을 주시면 제가 비밀게요... 이거 그냥 휘휘 저어서 막걸리로 해지? 예 막걸리로, 동동주 말고... 엄마, 엄마엄마엄마... 어떻게해... 간수 쏟았어요... 동동주예요, 막걸리예요? 여기 물 먹으면 이게 동동주... 이렇게 휘휘 둘러서 걸르믄 막걸리... 향 너무 좋다... 막걸리로 해는거지? 아 향 너무 좋죠... 냄새를 찍어야 되는데 냄새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쿵은 무슨 쿵이예요? 쿵이름. 이거 메주쿵이지, 메주쿵이라고 불러요? 며칠 불리셨어요? 저녁에 미리 불려놔야 돼. 엿저녁에 불려놔는데, 기다리는데 안와가지구선. 이렇게 하려면 여섯 시간은 불려야 되는 건가요? 여섯 시간이 뭐야, 한 열시간. 쿵 양이 얼마나 되나요? 한말? 아니야, 반말. 방앗간에 가지고가야 갈지, 밀로 갈어. 이거 없는 사람은. 그전엔 맷돌로. 다 갈으신 거예요? 기계로하면 금방해. 순식간에 갈린다. 예전에 방앗간으로 가져갈 때, 쿵을,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아까, 뒤집는다는게 뭘 뒤집는다는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짜세요? 지금 뭘 넣으시는거예요? 들기름. 왜 넣으세요? 거품 삭으라고. 이거 들기름을 안넣으면, 두부가 안돼, 올라와서. 근데 들기름을 넣으면, 거품이 삭아. 아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네요. 파신물. 들기름, 이게 비법이네요. 뜨거운물을 넣어야돼요. 뜨거운물로 받아가 하나짜 되는구나. 데워서 하면 복잡해. 이걸 가서 왜 안끓이고 그러나 했는데. 뜨신물로 하면 되는구나. 솥에다 끓여서 해야되는데, 나는 또 끓이는건 몰라요, 걸르는건, 뜨거워서 못해. 내가 그거 하다가 손을 여게 디어가지고, 상처가 흘랑 벗겨졌어, 얼마나... 폴폴 끓으면, 아주 엄청 뜨겁게 끓으면.. 꺽꺽 짜, 계속.. 꺽 짜서... 그냥 집에서 해잡을 때도 이렇게 하는거야? 그럼. 우린 꼭 솥에 끓여서 해. 뜨건물이 없으면 끓여서 해야지. 제가 찰까요? 찰 줄 알아? 다 허는 식이 있어서 안돼요. 요령이 어떻게 돼요? 요령

이 읊어서 안돼요. 이렇게 짜, 이렇게 짜야지 뭐. 인내봐. 이사람도 내가 가르
 커야돼. 난 이렇게는 안해봤어 끓여서 해봤지. 난 끓여서는 또 못해. 다 하는게
 다 틀리는구나. 가는것도 여기 안에 들어왔구나 인자. 진짜 두부도 깨도 많게
 허네 우리는 갈아가지고, 가마솥에 끓여서, 걸러서... 걸러서 간수치지? 짜가
 지고, 그래가 간수 치는데. 아 끓인 다음에 걸르세요? 응. 이렇게 하면 더 쉽겠
 다. 쉬워 이렇게 하면. 꼭 짜서. 이렇게 하면 쉽겠다. 뜨거우면 짜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왜 물을 뜨겁게 해서 짜셨어요? 뜨겁지 않으
 면 짜 지나. 아니, 예전에 하실 때. 이래가지고 끓여야지. 예, 근데 어짜피 끓일
 건데. 왜 따뜻한 물을 부으세요. 따뜻한 물을 여야 이게 빠지지. 더 잘 우려나
 라고, 콩물이 잘 빠지라고. 아, 콩물이 잘 빠지게... 주걱 이리내. 재료가 많아
 요. 술빚는거보다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뜨거운 물을... 여 하나 받아서... 여 안
 에 부어... 그래야 이게... 얼마나 부을까요. 다부어요, 다. 뭐든지 커야지... 늘
 어붙지 않아요? 계속... 살살... 예전에는 두부를 얼마나 자주 해서... 그럼요,
 그냥 잘해먹었지... 지금은 그렇게 안해, 귀찮아서... 이게 힘든거예요... 그러
 네요 한번 하면... 금방 해먹으면 맛은 있어... 언제 주로 하셨어요 두부를? 어
 른들 생일잔치 한다고.. 일월때, 큰일 치를때... 지금은 안해요... 가서 하니까...
 장사 지내도 안하고... 옛날에는 장사 지낼때도 하고 그러셨죠? 그전엔 다 했
 지, 수육하고 그거하고 다했지... 무슨 큰일 있다 그러면 다 같이 가서 도와주
 고? 그럼, 다 서로 도와주고... 가스가 높잖아, 이것을 짓는게 너무 힘들더라
 고... 우리 어머니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가스불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엄
 청 힘들고, 팔아프고... 1키로만 해도 힘들던데, 4키로를... 1키로 하면 얼마나
 나와? 1키로 하면요, 두모? 세모? 아 진짜? 아니다 아니다, 큰거 한모가 500
 그램이니까... 이걸 꽤 나올 것 같은데 두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남으
 면 가져가... 다 먹어야죠! 다 무슨수로... 저희 다 먹을 수 있어요... 밥이나 먹
 었어? 아침에요? 커피한잔! 예잇... 커피 한잔이면 돼요 저희는... 커피 한잔
 에... 사과 반쪽... 할머니, 두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어유, 그럼, 한말. 한말이요! 8키로! 거기다 마라오시라 그러면... 12키로... 마
 라오시요? 우리는 뒷박으로 재서 한말 두말 그러거든... 그니까 4키론데... 12
 키로를 해야돼... 그날이 무슨날이었는데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시할
 머... 할머니, 아버지..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래... 큰엄마가... 우
 리...의 형이 아들이 없어... 그래서 해줘야지... 게다가 또 명절 두번 지내시지.
 열한번, 열번, 열번. 한달에 한번꼴로... 게다가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와가지
 고 궁급하다고... 마을에 큰일 있을 때 또 하실거고... 결혼, 장례식... 다른 잔
 치에도 해주세요? 이제는 장례식, 당채 안해. 이젠 안하시고. 그냥 나가서 다
 해. 그럼 다른집 잔치에 해달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잘하시니까? 그럼. 잘 하시
 니까... 이걸 술슬 드리예, 말랑말랑 맛있지, 이걸 많이 한꺼번에 꼭 넣으면 판
 판해. 두부가. 판판해져. 이거 양은 그냥 감으로 느끼는 거죠. 저게 많이 들어
 가면 판판해진다고. 판판하면 맛이 읊어. 그쵸. 아 그래서 두부 살때. 두부 사
 는 두부는 그렇게 판판하게 맛없게 하지 않지 맛있게 해잖아. 시장에 가면은

부침용 두부, 뭐지, 그냥 먹는 두부.. 부침은 탄탄해야 되구, 만두 속 넣는건 탄탄해야돼... 이게 참, 고급 음식인거야... 잔치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애... 조금씩 저어가면서, 응고되는... 시간을... 시간을 맞춰야돼... 신기하지? 네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이걸 넣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고... 엷은, 마냥... 불을 때야... 이걸 많이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불을 때야 졸아붙어가지고 엷이 되지... 콩엷... 엷이 진짜 대단한거네... 그거는 불을 많이 때야돼... 옛날에 설탕 없을 때는... 단맛 내려면 그게 다니까... 까만게 여기 있었는데... 앓 할머니 여기요, 잠시만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이제 두부가 되네... 오늘 바람이 불어서... 아 꽤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맛 봐도 돼요? 응? 간수 맛 봐도 돼요? 아유, 쓰쵸! 많이 써요? 맛봐! 네 보여주세요... 으하하하하... 오... 소금물인데 그럼... 짜고 써요! 소금맛하고 다르다... 되게 쓰쵸... 맛이 달라? 네 소금하고... 달라... 짜고 쓰지... 그래서 간수 안뺀 소금 쓰면 쓴가봐요... 그르케 허구서, 그 소금으루다 김치를 해야 김치가 맛있지, 이거를 안뺀, 김치가 써... 그래서 그르케 허는거야... 간수는 따뜻할때 넣야돼쵸? 찰때 느면 안돼고... 이게 순두부야... 아 이렇게 천천히 굳히시는구나... 할머니 어릴 때 부터도 어른들이 두부 만들고 그런거 보면서 크셨겠네요, 그럼 그럼, 맺돌질도 다 허고. 아 그렇지 시키니까 그러면서 배우잖아. 그럼 이거 맺돌 하나로 갈다야요? 두부하는날? 아니면 여러개로 갈아요? 하나로 갈지! 누구네집 맺돌 가져오고 그러지는 않나보다... 그래도 오래 걸리니까... 그럼 옛날에 콩국수를 먹으려면... 안쉬게 먹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애... 어마어마했겠다...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콩국수는 이렇게 삶아서 걸르기만 하면 먹는거야, 그런데 차가워야잖아, 여름에... 그럼 어떻게 식혔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통에다 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었던 말이지... 시원하라고... 아주 옛날엔... 물을 길어다가... 차가운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걸러가지구 그냥 먹었지... 냉장고가 있어? 이거봐, 이게 다 두부가 됐지... 물이 투명해졌어... 물이, 그러네... 나중에 보이나 봐야겠다, 이게 앙기는 순간이 되게 희한해요... 보고 있으면, 분명히 아까까지는 우유 같은 물이었는데... 그러네 벌써 바뀌었어요... 삭, 바뀌거든요... 그걸 못봤다... 뭘? 이게 이렇게 물이 됐잖아요, 이게, 아까는 우유 같았는데, 색깔이, 지금 약간 투명해 졌잖아요, 물처럼. 그럼, 그럼. 그 바뀌는 순간을 못봤어요. 뭘 못봐 이게 보는거지. 지금 보고 있는거야 이게. 아 정말 맛있겠다. 이걸 많이 느면, 이게 빨개져, 그러면 맛이 없어. 이게 뿌예야돼. 할머니 콩비지는 어떻게 드세요? 콩비지 탕해서 드세요? 콩비지 저기 남은거. 어떻게 해서 드세요 보통. 그냥 비지로 끓여먹어도 되고, 김치 넣고 끓여먹는게 비지장이야. 비지를 띄워 드시는 데도 있더라구요. 띄워도 먹고. 어떻게 띄워? 띄우는건 저 술에다 볶아야돼. 아 볶아서. 뜨거운걸. 볶아다 갖다 저기 청국장마냥 띄워야돼. 오 난 비지 띄우는 건 첨들어보는데. 첨들어보지, 다 첨들어보는거지. 네. 다된거예요? 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윗물을 떠내시는구나! 완전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럼. 할머니 이거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 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직접 손으로... 우와... 맛 장... 단데요?

달지? 예. 장난아니죠... 식감이 장난아냐..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순두부야, 순두부 먹을래? 먹을터? 네! 그릇 갖고와 그럼. 그릇 갖고와요? 언니 손가락 두개요! 아우 할머니 너무 맛있네요... 간이 딱 맞아요. 그럼.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또 안돼. 원래 간수가 짜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간간하게 간이 맞구나... 손가락 두개만 갖고왔는데, 팬찮아요? 두개면 먹지 뭘. 할머니는 안드세요? 난 안먹어. 아우 설레. 오 이렇게 많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빨간 통이 엄청 크네요. 거기 너무... 하니까 나오지 않냐... 저만 그냥 힘이 췌가지구... 제가 이거를 조금씩 모을게요... 이거 제가 신경쓸게요... 아우 이제 신경 안써두 돼요... 신경 쓸데가 따로 있지...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얹전허게 해... 얹전허게 해...! 이렇게요? 그래... 어, 얹전하게 한다고 하시는구나... 나는 이거를 한번에 다 빼내는 건줄 알았어. 물을... 그쵸, 그쵸... 되게 효율적으로 잘하시네... 여기 귀통이에는 안 찌들러졌네 또... 에이... 오 그렇게 썰으시는구나... 원래 물 속에서 굳히는거예요, 굳히실 때는? 그럼. 진짜 맛있겠다... 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물을 안 빼신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다 건어 내는줄 알고... 이유가 있죠 다... 아 맛있겠다... 아 뜨거, 덜 찌들러졌네... 덜굳었어요? 덜굳었어, 먹기는 좋은데... 아 뜨거뜨거뜨거... 지금 빼야돼요? 지금 잠시 시식 하시겠다... 아우 저사람들 먹을려구 앓어있으니 어떡해... 당연히 드려야죠... 걸 어떡해... 먹어야지... 아 있다 잔치에 안오세요? 저분들은 안오세요? 자 이거 가져가, 먹으라그래... 다시 얹전하게 해야돼죠...

뉴-호프

신망리의 풍경은 이장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가꾸어온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망리에는 몇 해 전 실내 게이트볼장이 들어섰고, 마을주민들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 중이다. 새로운 희망, 신망리에 다시금 새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게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곤 하는 게이트볼장에 '뉴-호프'를 열고, '하나도 자랑할 것 없다'는 주민들의 일상 속 음식과 문화를 재해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뉴
호
프

이경희, 이아람, 자우녕, 진나래







뉴-컬러 (신망리 컬러잉북)

이경희

뉴
컬러





COLORING

BOOK

〈신망리의간판들〉

신
망
리
를
아
시
나
요

N
E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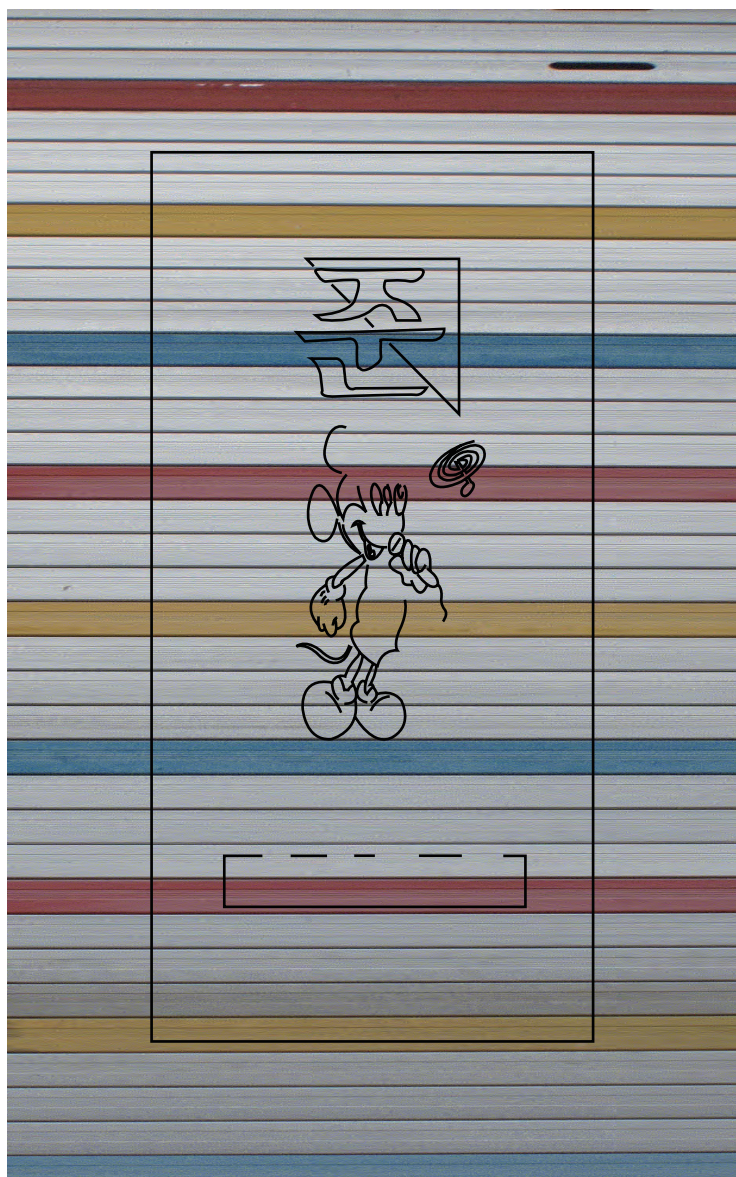
H
O
P
E
T
O
W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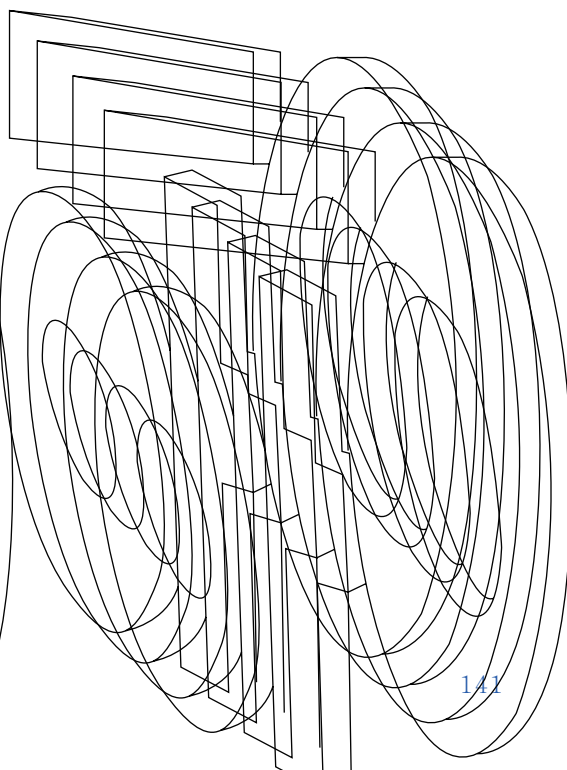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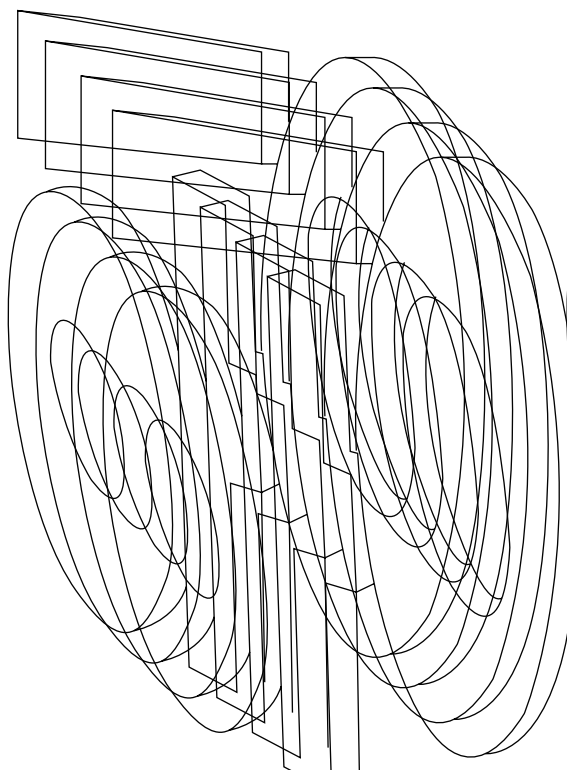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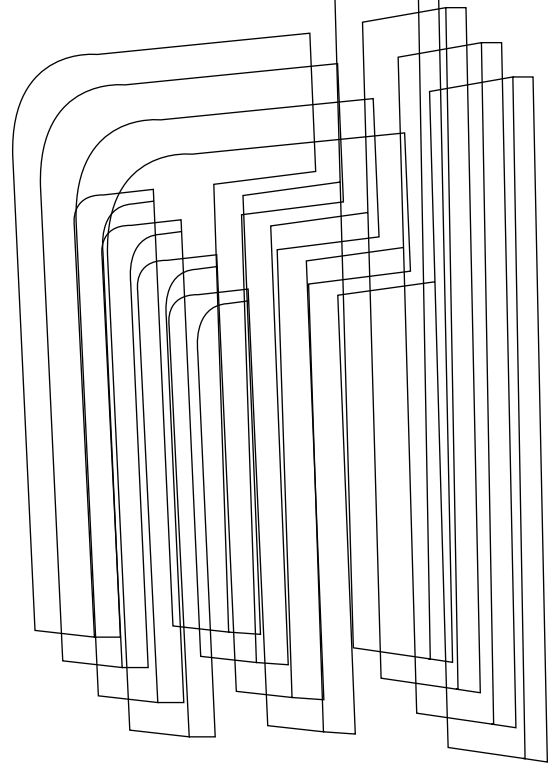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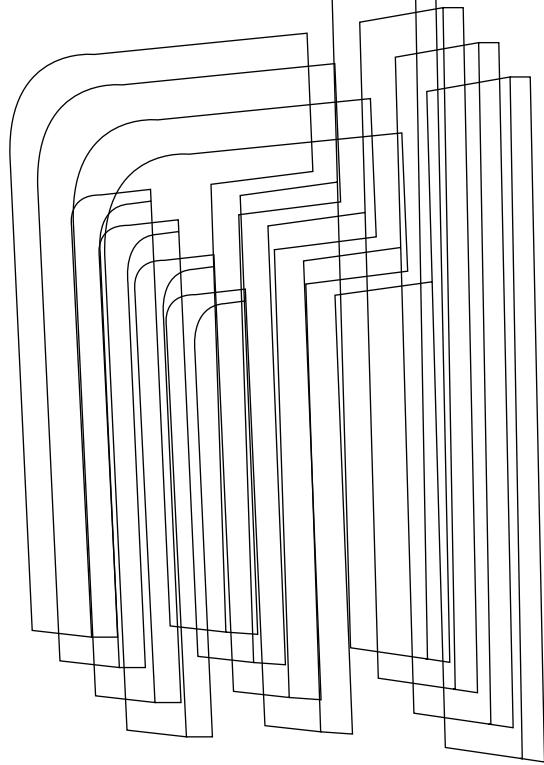


상리를 아시나요?



KNOW
SIN
MANG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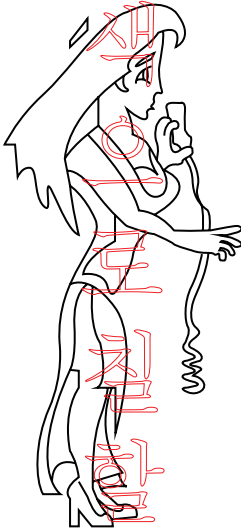
미
지
수

미
지
수

미
지
수

미
지
수

어
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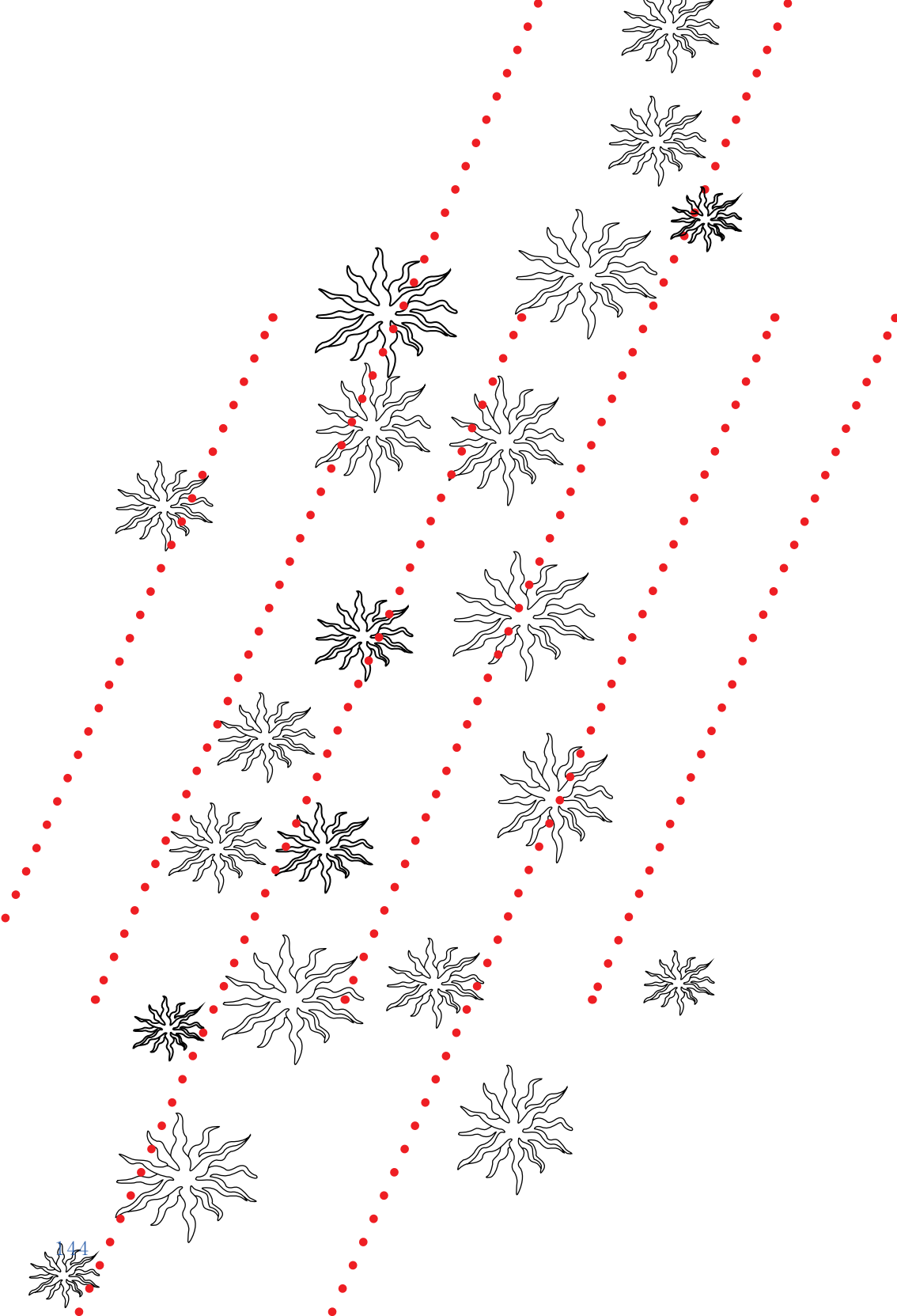
까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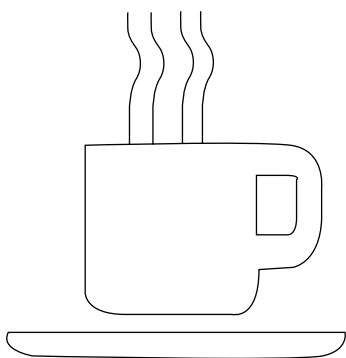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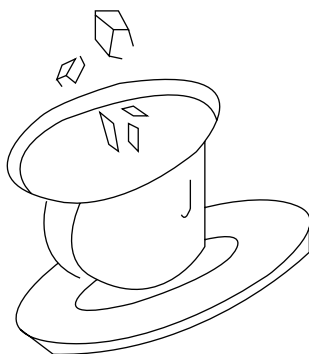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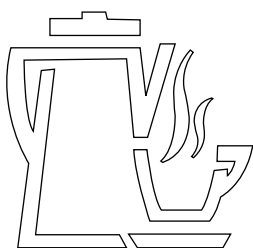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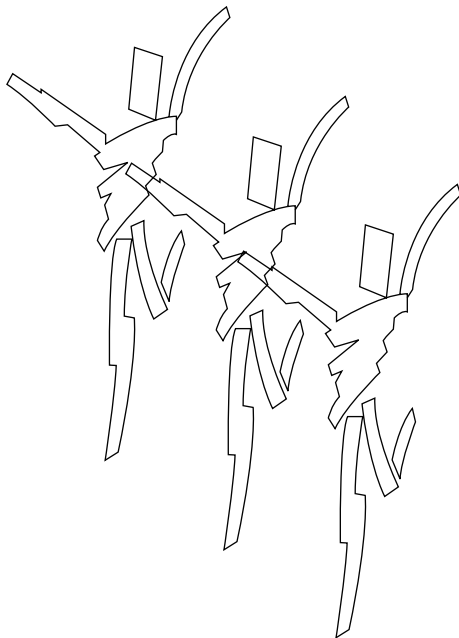
미
지
수

미
지
수

미
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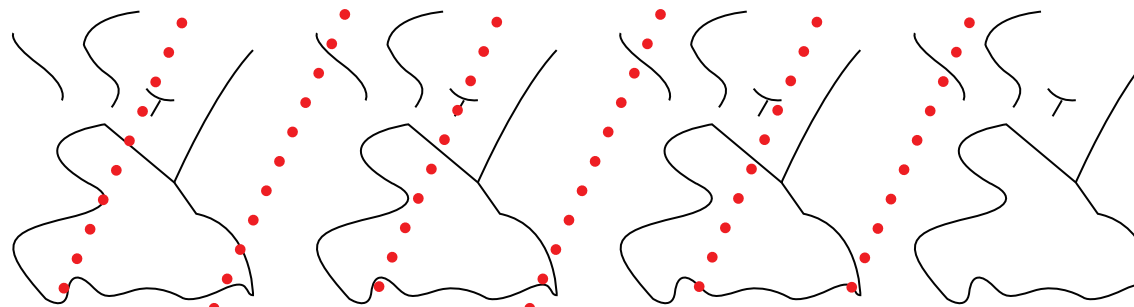
미
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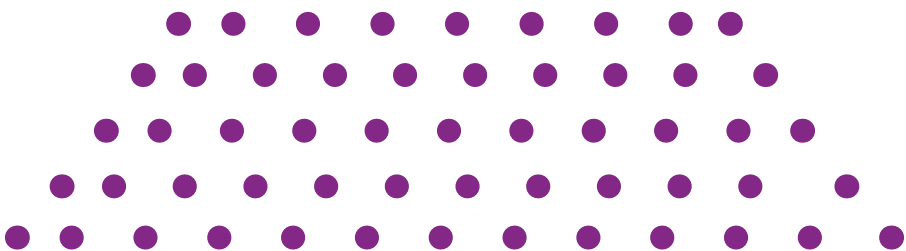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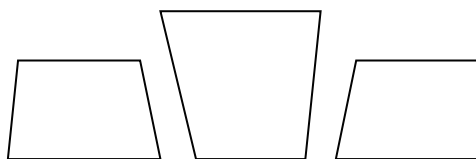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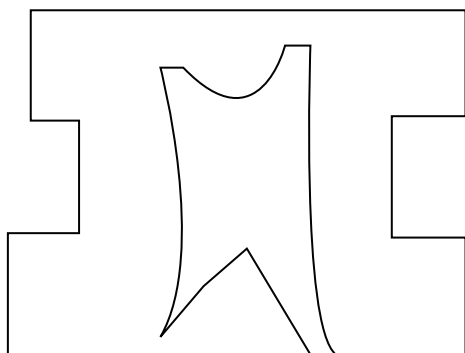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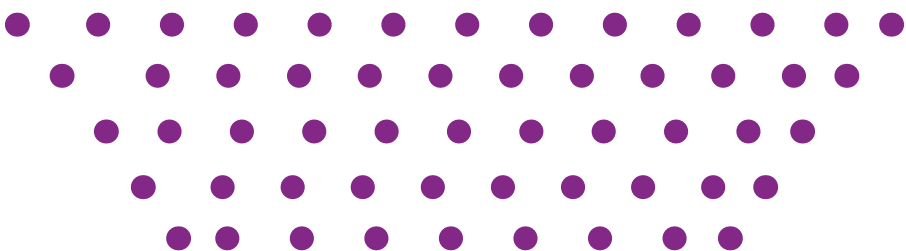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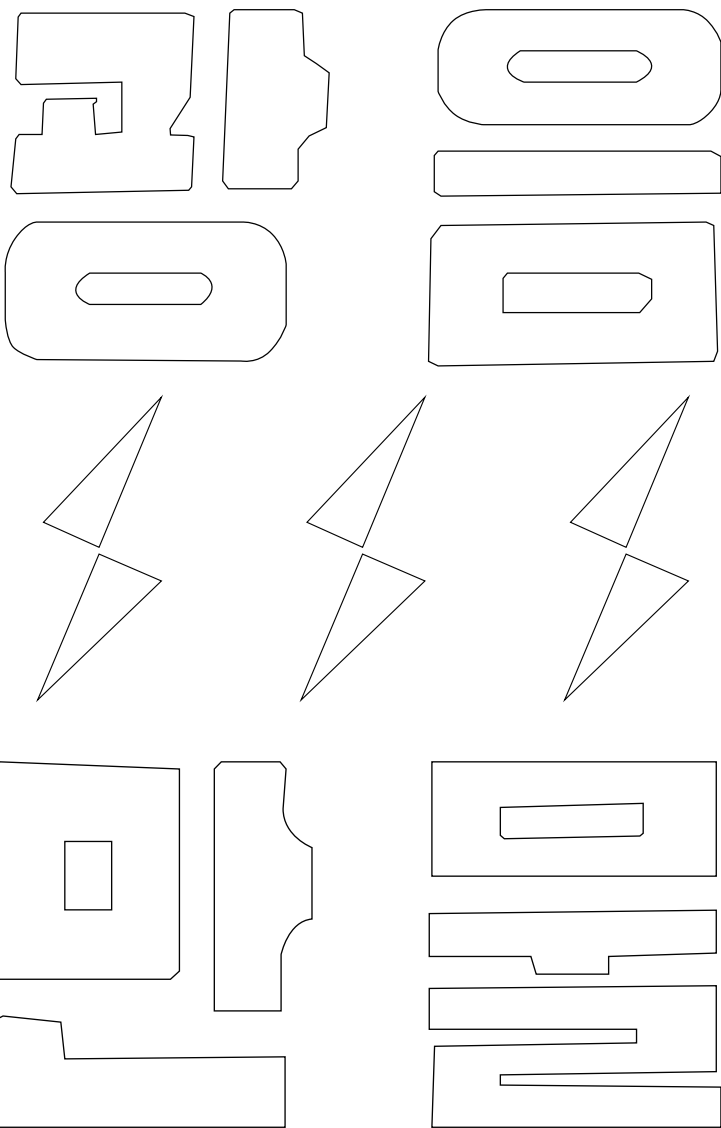
조례는



조례는

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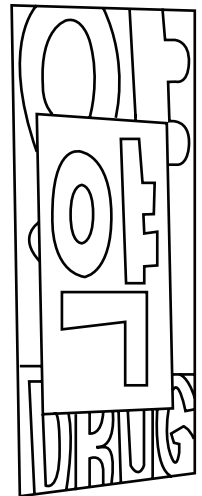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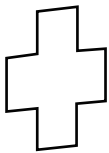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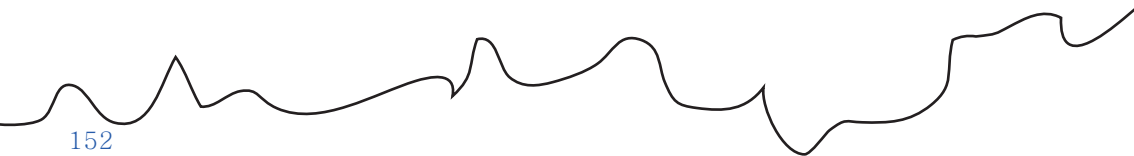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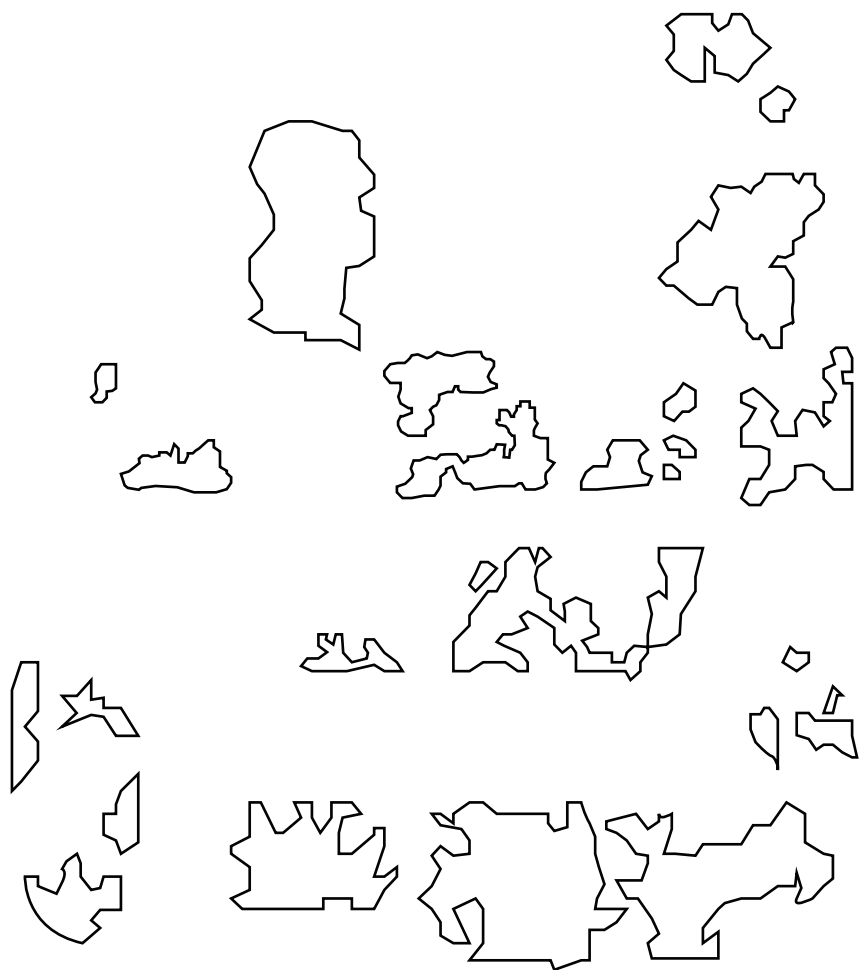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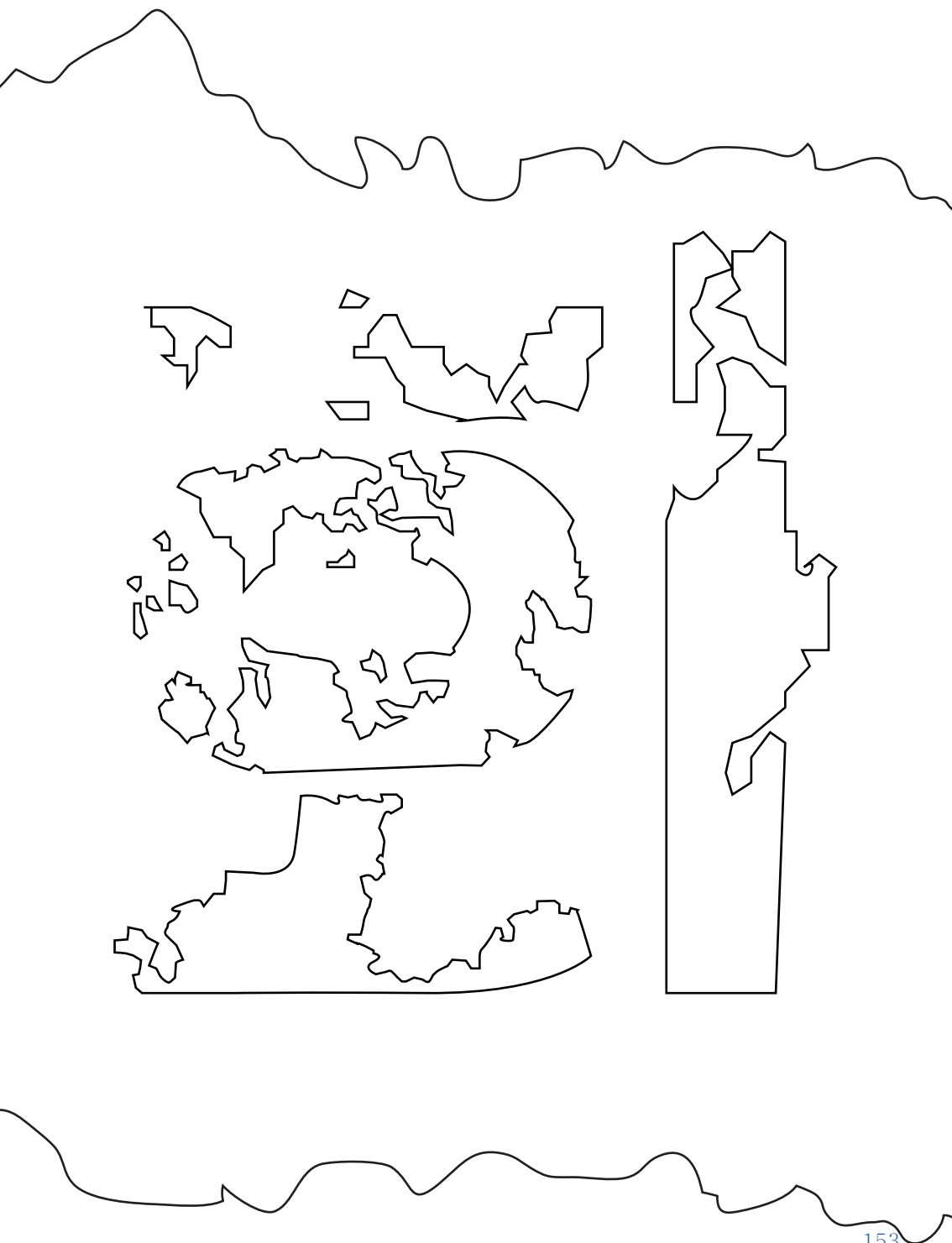
약

○

약







추진주체

진나래

진나래는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이후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이야기를 편집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고, 사실로 여겨지는 것들의 사회적 구성성에 주목한 문학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2년 아트콜렉티브 ETC를 결성하여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국내외 다수의 레지던시,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부터 개인의 삶과 기억, 가족사를 기반으로 냉전을 비롯한 거시사의 이면을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신망리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총괄 및 작가로서 이경희, 이아람, 자우녕 작가를 초대하였다.

자우녕

자우녕은 마르세이유 국립조형예술대학교에서 조형미술과 사진, 영상을 공부하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경기창작센터, 베를린 ZK/U 등 국내외 레지던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이주와 기억, 타자와 재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대부도 선감학원을 다루는 ‘선감이야기길’의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신망리 아카이빙 프로젝트에서 방공호 등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드로잉-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했다.

이아람

이아람은 현재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살고 있으며,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중이다. 신망리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음식 문화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뒤늦게 팀에 합류했다. 마을 잔치날 정순이 할머니가 이면 막걸리를 빚고 두부를 찌는 것을 기록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잘 보이지 않는 것들, 불확실하고 덧없는 것들의 목록, 스무 겹의 매트릭스 아래 놓인 완두콩의 존재감, 무언가가 말해지기 직전의 긴장감, 번역되지 않는 것들에 관련된 작업을 한다.

이경희

이경희는 경기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경기,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주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심의 문제를 파고드는 형식으로 사회와 개인의 연결지점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5년 가창창작스튜디오를 시작으로 항저우, 베를린 등 다양한 지역의 레지던시, 4번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신망리에서는 중전 전후로 미군으로부터 보급된 100채의 구호주택, 이후 주둔한 군부대와 이에 연결된 마을 주민들의 삶에 중점을 작업을 진행하였다.

백인태

백인태는 만화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설치 작업을 지속해왔다. 신망리 프로젝트에서는 이동식 팝업사무소 ‘핫-스팟’을 의뢰받아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하였다.

10368호
9664호

약국

치방·초제

834-2576

관내통
정지
전차차량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연천 신망리 : Town. Hope. New

기 획 경기문화재단
총 괄 박희주 / 문화예술본부장
책 임 허윤희 / 북부문화사업단장
담 당 장희주 / 북부문화사업단
김지연 / 북부문화사업단
업무지원 김지옥 / 북부문화사업단
추진주체 진나래 (총괄기획)
참여작가 이경희, 이아람, 자우녕, 진나래, 백인태

사진제공 참여작가
디 자 인 이준규 jk.or.kr
인 쇄 인타임

발 행 일 2018. 8. 29.
발 행 인 경기문화재단 설원기 대표이사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주 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연 락 처 031 - 231 - 7200
팩 스 031 - 236 - 3708

본 책자는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의 기록과 공유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